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Xylographica of Myopopyunhwakyung Printed by Movable Type in the Chosun Dynasty

강 순 애(Soon-Ae Kang)*

목 차

I. 서론	2.7 현종조 번각본
II. 묘법연화경의 동전과 유통	2.8 숙종조 번각본
III.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유통	2.9 영조조 번각본
1. 원본의 유통	IV. 각 판본들의 서지적 성격
2. 번각본의 유통	1. 사찰
2.1 성종조 번각본	2. 활자본의 서체
2.2 중종조 번각본	3. 변상도
2.3 명종조 번각본	4. 경판간행질
2.4 선조조 번각본	V. 결론
2.5 광해군조 번각본	부록 : 그림 1-24
2.6 인조조 번각본	

초 록

이 논문은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를 위해 묘법연화경의 동전과 유통,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유통, 각 판본들의 서지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묘법연화경은 유통본의 종류가 많아서 그 계열을 가름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활자본은 초주갑인자본과 을해자본으로 세종·세조조에 찍어 유통시켰고, 이들의 번각본이 성종부터 영조조까지 유통되었다. 이들 판본에 나타나는 서지적인 성격은 사찰, 서체, 변상도, 경판간행질에 있어 다양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xylographica of Myopopyunhwakyung printed by movable type in the Chosun Dynasty in three aspects. It analyze: i) the spread to the East Asia of Myopopyunhwakyung and its distribution; ii) the distribution of Myopopyunhwakyung printed by movable type in the Chosun Dynasty; iii)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 of each edition. There are many editions of Myopopyunhwakyung, it is important to divide its circle of editions and to suggest the value. Myopopyunhwakyung was printed and distributed by movable type of Chojukapinja and Eulhaeja style in the Sejong and Sejo reign. Its reprinted edition was distributed from the Sungjong reign to the Youngjo reign.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of each edition of Myopopyunhwakyung is various and peculia in the temple, calligraphic style, an illustration of Buddha preaching, and the list of participants and donors.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1999년 11월 22일

I. 서론

묘법연화경은 도진의 鳩摩羅什이 번역한 7권의 경전이다. 이 경전의 원명은 범어로 Saddharma-Pundarika-sutra(薩達哩麻奔怛唎乞蘇怛囉)으로 그 뜻은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 경전은 서진의 竺法護에 의해 正法華經으로 번역되었고, 구마라습은 '正'을 '妙'로 해석하여 妙法蓮華經이라 하였다. 범칭 法華經으로 일컬어진다.

묘법연화경은 대승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멸하는 1,200년경까지 발전하여 초기(기원 전후 350년경), 중기(350-650·700년경), 후기(서기 1,200년경)로 나누어지는데, 묘법연화경은 반야경, 유마경, 화엄경 정도 계통의 경전들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에 속하는 경전에 속한다. 묘법연화경은 인도 서북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고, 여섯 차례 한역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세종류이다. 286년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 406년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601년에 闍那堀多·達摩笈다가 번역한 添品妙法蓮華經이다. 이들 세종류의 경전은 북송 대장경이 고려에 수입될 때, 동시에 들어와 간행되었다. 초조대장경의 목록의 전신인 舊大藏目錄에는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 鳴函에, 축법호의 정법화경이 鳳函에, 도나굴다와 달마급다의 첨품법화경이 在函에 편입되어 있다.

위의 법화경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 유통된 경전은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다. 특히

이를 저본으로 이해하기 쉽게 편술한 戒環의 요해본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조 전반을 통하여 보급 유통되었다. 이들의 계통은 목판본, 성달생서체계, 황진손서체계, 활자본계, 간경도감계, 정희왕후주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성달생서체계의 계환해의 판본계열,¹⁾ 정희왕후주관계열²⁾은 계통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들 법화경의 계열에 관한 연구는 필자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법화경은 유통본의 종류가 매우 많아서 계열을 가림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는 하는 것은 서지학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동시에 불교학과 문헌학의 연계 선상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인이 세번째로 시도하는 활자본계의 법화경판본도 원판과 번각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법연화경에 관한 일차적인 문헌과 현전실물을 분석하여 묘법연화경의 동전과 유통,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원본과 번각본의 유통, 각 판본의 서지적 성격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주제별 문헌의 선별과 수집, 선본의 가치식별, 서지학과 불교학의 접목 등에서 선연이 되고자 한다.

II. 묘법연화경의 동전과 유통

법화경은 인도에서 석가 입멸후 서북 인도에서 주도된 대승불교의 소의 경전 중의 하나로서 일찍이 중국에 전해졌다. 유통본으로 가장 오래

1) 姜順愛, 成達生書體系의 妙法蓮華經 戒環解의 板本에 관한 研究. 伽山學報 제6호 p. 33-85.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2) 姜順愛, 貞熹王后 주관의 妙法蓮華經 板本에 관한 研究. 김중렬교수회갑기념논문집: 韓國의 古典研究. 서울: 太學社, 1998. p. 609-673.

된 것은 서진의 촉법호가 268년에 번역한 『정법화경』 10권이다. 다음은 동진의 구마라습이 406년에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본이다. 이는 본래 27품이었는데, 남제(483-493)때 법현이 서역에 가서 제발달다품을 번역하여 첨가함으로써 28품이 되었다. 보문품 가운데 계송으로 거듭 찬탄하는 26계송이 처음에는 누락된 것인데, 수의 도나굴다가 601년에 『첨품법화경』 7권을 번역하는 가운데 이 계송이 들어 있었으므로 현행의 28품으로 완성되었다. 이밖에도 지도근이 번역한 『방등법화경』 6권과 지강양접의 『법화삼매경』 6권이 있다. 이들 법화경이 중국에서 크게 유포된 것은天台智顛(538-579)가 『법화삼매』를 닦고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교관을 세워 교세를 크게 떨쳤던 때이다.³⁾

이들 법화경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지만 삼국 시대로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에는 삼국중 가장 먼저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의 符璽가 불상과 경문을 전하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법화경 전래의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고구려의 慧慈⁴⁾, 波若⁵⁾ 등의 행적을 통해 법화사상이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백제에는 智顛의 동문인 玄光이 대

建5년(573)에 천태의 제2조인 南嶽慧思로부터 法華安樂行門을 이어 받아 法華三昧와 觀心法을 깨달았고 귀국한 후에는 熊州를 중심으로 법화를 교화하는데 주력하였다.⁷⁾ 이 법화경안락행문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제 14품인 안락행품을 일컫는다. 이는 身·口·意·誓願 등 네 가지의 안락행을 설하고 있는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을 형성한 사람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으며, 서원이 없는 사람은 중생을 깨우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화사상의 맥락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武王시대의 惠現(570-627)스님이다. 그는 늘 법화경을 독송하였고, 修德寺에 있다가 만년에는 達拏山寺로 갔다가 입적하였다 한다.⁸⁾

신라의 법화경 전래와 유통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법화경 전래에 관한 초기의 스님으로는 緣光을 들 수 있다. 연광은 중국에 들어가 천태 지의의 제자가 된다. 지의 문하에서 開皇年間(581-600)에⁹⁾ 법화경을 수학하고 신라로 귀국하여 법화신앙의 확대에 노력한 인물이다. 이후 신라의 학자들은 법화경의 연구에 힘쓰는데, 閔泳珪 박사

3) 李慧暉, 팔만대장경, 서울 : 普成文化社, 1996, p. 149-150.
 4) 慧慈(595-615)는 고구려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聖德太子를 20년간 교육하고 615년에 귀국하였다. 성덕태자가 중시했던 경전은 『妙法蓮華經』, 『維摩詰所說經』, 『勝鬘夫人經』이었던 것으로 보아 혜자스님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5) 波若는 중국 陳에 입국하여 천태산 智顛선사에게서 선법을 전수하였고(596), 천태산 華頂峯에서 수도하여(598)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16년을 계속하였다. 어느 날 홀연히 하산하여(613) 佛隴寺로 갔다가 國淸寺에 이르러 입적하는데 52세이었다. 고구려에 귀국하지는 않았지만 천태교관을 닦은 사람이다.
 6) 陸楨培, 韓國佛敎와 法華經 :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中心하여, 佛敎大學院論叢 3(서울 : 東國大學校佛敎大學院, 1966, 2) : 1-20.
 7) 宋高僧傳 권18, 釋玄光傳.(大正藏 卷50, p. 820c - 821a)
 8) 唐高僧傳 卷28, 釋惠現傳(大正藏 卷50, p. 687c)
 9) 弘贊法華傳, 法華靈驗傳 : 이들 전기에는 緣光이 중국으로 간 것은 仁壽年間(601-604)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스승인 智顛가 597년에 입적하였고, 법화묘전을 널리 유포하던 때 그가 수나라로 갔다고 하므로 開皇年間(581-6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권15 p. 286에도 이 내용이 정정되어 있다.

의 『新羅章疏錄長編』 不分卷을 참조해보면 15종이 보인다.¹⁰⁾ 이들 15종의 문헌에 나타나는 元曉, 憬興, 順景, 惠雲, 太賢, 玄範, 道倫, 義寂 스님들은 모두 통일신라 초기에 활동한 이들로써 법화경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위의 장소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法華經宗要』와 『法華經論述記』 上卷¹¹⁾의 2종뿐이다. 그 중 법화경 중요는 구마라습 번역의 『묘법연화경』을 소의경 전으로 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서술하고, 經宗을 분별하며, 詮用을 밝히고, 題名을 풀이하며, 敎攝을 드러내고, 경문의 뜻을 밝히는 등의 6門으로 나누어 법화경의 요의를 약술한 책이다.¹²⁾ 그 후 중국의 천대는 五祖 玄朗의 법맥이 신라의 法融, 理應, 純英의 3인에 의해서 신라에 유포되었다 한다.¹³⁾ 이들은 현량법사의 가르침을 받고(730) 귀국하여 법화경의 유포에 노력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태조18년(935)에 중국에서 子麟이 들어와 천태지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¹⁴⁾ 또한 고려초기 중국의 오대에 유학한 선승들은 천태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法眼宗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국의 天台宗은 법안종을

매개로 삼아 고려의 유학승들을 통하여 고려의 천태학을 흡수하기도 하였다.¹⁵⁾ 당시는 서역승이 고려로 귀화하였고¹⁶⁾ 고려의 불교 기반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이 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데 역점을 두어 저술한 것이 諦觀의 『天台四敎儀』이다. 이 책은 원래 상·하 두 권이었는데, 상권은 天台敎判인 五時八敎에 의한 교의 전개이고, 하권은 남북조 여러 학자들의 교판설을 열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유행하지 않고 있다.¹⁷⁾

체관이후 법안종의 사상적인 체계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수립하는데 그 기반이 되고 있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세(1065)에 출가하였고, 30세 되던 선종2년(1085)에 渡宋 하여 천태와 화엄을 공부하였고, 이듬해인 선종3년(1086)에 불교경전과 章疏 3,000여권을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 선종7년(1090)에는 그간에 수집한 장소록을 토대로 『新編諸宗教藏總錄』3권을 저술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속장경을 인쇄하였다. 의천의 속장경에는 법화경에 관한 장소만도 지자대사의 『法華文句』를 비롯하여 智圓의 『無量義經疏』에 이르기까지 61종이 수록되어 있다.¹⁸⁾ 의천은 숙종2년

- 10) 閔泳珪, 新羅章疏錄長編 不分卷, pp. 8 - 42. ① 法華經方便品料簡 一卷, 元曉 撰. ② 法華經宗要 一卷, 元曉 撰. ③ 法華要略 一卷, 元曉 撰. ④ 法華略述 一卷, 元曉 撰. ⑤ 法華經疏, 十六卷, 憬興 撰. ⑥ 法華經辨簡 一卷, 順景 撰. ⑦ 法華經料簡 一卷, 惠雲 撰. ⑧ 法華經古迹記 四卷, 太賢 撰. ⑨ 法華經疏 八卷 或七卷, 玄範 撰. ⑩ 法華經疏 三卷, 道倫 撰. ⑪ 法華經論述記 三卷, 義寂 撰. ⑫ 法華經綱目 一卷, 義寂 撰. ⑬ 法華經料簡 一卷, 義寂 撰. ⑭ 法華經驗記 三卷, 義寂 撰. ⑮ 法華經疏 一卷, 玄一 撰.
- 11) 洲進法相章疏(大正藏 卷55, p. 1141下), 東域傳燈目錄 講論錄 3(大正藏, p. 1156中), 奈良錄 2250 寶字7年記(前掲論叢 11卷 p. 131), 己續藏第95帙 第4冊 卷上.
- 12) 金煥泰, 韓國佛教古典名著의 世界, 서울: 民族社, 1994, p. 21-24.
- 13) 佛祖統紀 卷7: 釋門正統 卷2.
- 14) 佛祖統紀 第23, 42.
- 15) 陸楨培, 韓國佛教와 法華經: 三國時代와 高麗時代를 中心하여, 佛教大學院論叢 3(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1966, 2): 12
- 16) 僊鳳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p. 594: 我太祖創萬世之業 西天竺國三藏摩訶羅不召自來 於是知大法之將興 益憑願力.
- 17) 李永子, 天台思想, 韓國佛教思想史概觀, p. 134

(1097)에 國淸寺의 주지가 되어 천태종을 개립하였고,¹⁹⁾ 그 후 예종4년(1109)에 천태종의 僧試가 시작되어 6대본산을 두어 천태종을 중심 종교로 삼게 하였다. 국사 사후(1101) 그의 문도는 117명이나 되었고, 직제자는 德麟, 翼宗, 景蘭, 連妙 등이 있고 翼宗의 제자 教雄, 교웅의 제자 德素로 이어지면서 12세기 말기까지 천태교단의 선풍을 드날렸다.²⁰⁾ 이들 국청사 중심의 천태교단은 교관 중심의 교단으로 화엄·천태 또는 천태·선 등의 제 교법을 섭렵하는 것으로부터 사상 통일 및 국론 통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의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후 圓仰國師인 了世(1163-1245)가 전라도 康津의 萬德寺에 白蓮寺를 結社하고 보현도량을 개설하여 천태종을 중흥하였다. 그 법은 제2세 天因에게 계승되는데, 법화경과 자기 心中에 정토를 표명하는 미타 신앙을 기저로 삼았다. 그의 법계는 天頤의 선교일치사상, 無壽의 主教從禪의 사상으로 이어지면서,²¹⁾ 법화삼매에 이르게 하는 실천 방법으로 참회 수행을 강조하는 普賢道場에 역점을 두었다. 이들 萬德寺系는 圓慧에 의해 妙蓮寺系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天台疏²²⁾를 중심으로 經疏와 忌齋 및 奉福에 관심을 두었다.²³⁾ 이들 법계는 洪愨를 거쳐 당시 충렬왕

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趙仁規家(1227-1308)출신의 無畏(混其), 順菴(義璇)으로 이어지면서 귀족불교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국청사의 사상을 법맥으로 잇고자 하였다.²⁴⁾ 이러한 귀족 불교에 대응하여 고려 말기 천태종 본연의 서민 불교로 돌아가고자 노력한 불승은 萬德寺系의 雲默과 行乎였다. 雲默은 始興山 卓一庵을 중심으로 법화경만을 독송하고 불서의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 『釋迦如來行跡頌』과 『警策』을 저술하였다.²⁵⁾ 行乎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조 초기에 활동하였으며, 특히 척불운동이 전개되었던 조선조 초기에 천태종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는 고려 文獻公 최충의 후손으로 계행이 높아 천태의 영수가 되었다. 태종때 소경공을 위해 大慈菴을 세우고 왕명에 의해 주지가 되었으며,²⁶⁾ 세종이 즉위하여 判天台宗師에 임명되었다. 慈親을 侍奉하여 석자들의 모범이 되었고 頭流山, 天冠山 등지에 여러 사원을 중창하였으며, 효령대군의 힘을 빌려 了世의 중심 사찰인 만덕사를 중창하였다.²⁷⁾ 천태종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말 天台法事宗과 天台疏字宗의 二派로 양분되었다. 조선 초기에 와서는 오교양종의 칠종이 선교 이종으로 병합되었고 천태선과 조계선은 단일종이 되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조

18) 義天, 新編都宗教藏總錄 권1. 法華經.
 19) 李載昌,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開立. 韓國天台思想研究, p. 173-175. 佛教文化研究院 編, 1986.
 20) 李永子, 天台思想, 韓國佛教思想史概觀, p. 142.
 21) 李永子,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서울: 民族社, 1992. p. 34-39.
 22) 天台疏의 범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중요시되던 法華三部經은 湛然이 편집한 『摩訶止觀』, 『法華玄義』, 『法華文句』였다.
 23) 圓慧國統祭文, 東文選 109卷 8冊 p. 388.
 24) 韓基斗, 麗末鮮初의 天台·法華思想. 佛教文化化研究院 編,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東國大佛敎文化研究院, 1986. p. 351.
 25) 徐閔吉, 雲默의 天台念佛. 佛教文化研究院 編,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東國大佛敎文化研究院, 1986. p. 275-296.
 26) 東國輿地勝覽 11卷 高陽郡條 2冊 p. 295.
 27) 萬德山白蓮寺重創記, 東文選 7冊, p. 40-41.

초기의 시기에 이러한 천태의 맥락 속에서 개관 유통되었던 법화경중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과 이를 기초로 하여 송의 계환이 주해를 붙인 법화경 계환해가 유통되었다. 이들의 계통은 다양한 데, 이중 본 논문에서는 활자본계의 판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치유하기 위해 인쇄한 것이고, 세조3(1457)에 100건을 인출하였는데, 이 두판본이 번각본의 저본이 되었다. 을해자본은 세조원년에 인출한 을해자초간본과 세조연간에 인출된 원본이 남아 있는데, 이들 원본이 번각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Ⅲ.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유통

1. 원본의 유통

활자본계 묘법연화경의 유통은 갑인자계통과 을해자계통의 두 종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현존 본종의 갑인자는 세종32(1450)에 문종의 병을

1.1 세종·세조초 초간본

활자본계의 원본은 세종32년(1450)의 초주 갑인자본, 세조3년(1457)의 갑인자본, 세조원년(1455)의 을해자본과 세조연간(1455-1468)의 을해자본이 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중의 세종32년본은 유정선(대일사)이 소장하고 있으며 권5-7만이 남아 있다. 권말에 붙어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32년

〈표 1〉 세종·세조초 간행의 갑인자본 및 을해자본

서명	권수	번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法蓮華經	권5-7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本			세종32(1450)	四周單邊, 半郭 24.7×16.7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5.5×22.9cm.		跋文: 景泰元年(세종32, 1450) ... 金守溫 跋題		대일사
묘法蓮華經	권5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本			세조원년(1455)	四周單邊, 半郭 27.3×20.0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4.9×24.9cm.				고려대 만송문고귀71G
묘法蓮華經	1책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甲寅字本			세조3(1457)	四周單邊, 半郭 24.8×16.8cm, 有界 半葉 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35.6×21.8cm.		永嘉眞覺大師證道歌 跋文		서울대학교 가람고귀 294.333-B872m-V2
묘法蓮華經	2, 3권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本			세조연간(1455-1468)	四周單邊, 半郭 27.3×20.0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4.9×24.9cm.				연세대 귀234

정월에 당시 동궁이던 문종의 痲疾이 더 심해 지자 안평대군 瑑, 금성대군 瑜, 李思哲, 鄭孝康, 李永瑞, 李命敏 등으로 하여금 倭楮紙를 사용하여 화엄경을 목판으로, 법화경은 주자로 각각 33부를 인쇄하도록 하였는데,²⁸⁾ 그중 김수온발문이 붙은 권5-7 묘법연화경이 전래되고 있어 인출경위를 알 수 있게 한다(그림 1-1 - 1-3). 이 판본은 또한 뒤에 언급하는 성종 24(1493)에 만수산 무량사에서 번각된 판본인 동국대학교 소장본(213.14법96·23)의 저본이 되는데, 번각본 권7 끝에 붙어있는 金悅卿의 발문에 의해 그 경위를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대 가람문고에 초주갑인자병목활자로 인출된 법화경이 있는데(가람고귀 294.333-B45m-v.2 목록P. 1321), 발문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인출된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이의 인출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에 소장된 『永嘉眞覺大師證道歌』의(고려대구장목록 귀 413.) 강맹경 발문에 의거하면, 세조의 명으로 세종의 유명을 따르고 동궁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금으로 법화경을 1건, 먹으로 지장경, 기신론, 법망경행원품 1건을 사성하고, 대장경중의 화엄경 일건, 법화경, 능엄경, 번역명의 각 일백건, 지장경과 참법 각14건을 인성하였다.²⁹⁾ 따라서 서울대 가람본은 세조3(1457)에 인출된 법화경 100건중의 하나로 인출상태가 깨끗하고 종이는 고정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지는 연화의 능화문양을 아름답게 새기고 있으며, 1967년 5

월17일 동국대학교 전시에도 출품되었던 도서이다(그림 2).

을해자본은 세조원년(1455)에 강희안의 글씨체를 자본으로 하여 주성한 대·중·소자의 활자로서 간행되었다. 이의 간행을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293) 판본에 의해 알 수 있다. 고려대만송문고 귀71G(373275)의 묘법연화경 권5는 고정지에 인출하였는데, 인출상태가 좋고 보관상태도 좋아서 을해자초간본에 해당한다(그림 3). 연세대 판본은 세조원년의 초간본은 아니지만 인출상태가 좋고 2·3권이 남아 있는데 세조연간에 간행된 책으로 여겨진다(그림 4).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소장본(귀638, 0885)은 같은 계통의 을해자본을 번각한 권6인데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도각상태는 양호하다.

2. 번각본의 유통

조선조 서적정책 유통의 한 방법은 기존의 서적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이 가장 일반화되었다. 조선조 서적정책 유통의 한 방법은 기존의 서적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이 가장 일반화되었다. 이들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은 세종말기와 세조초기의 간본들을 저본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판각이 이루어졌다. 각 번각본들의 후쇄본은 그 판과 관련지어 언급하였다. 이들 각 판본에 대해 살

28) 세종32년(1450) 권7 金守溫 跋文: “今年正月 又得斯疾 比前由劇… 乃於閏正月十九日 命安平大君臣瑑 錦城大君臣瑜 都承旨臣李思哲 司僕少尹臣鄭孝康 校書校理臣李永瑞 戶曹佐郎臣李命敏等 作倭楮紙 印華嚴法華各三十三部 華嚴則木板 法華則鑄字 皆吮油煙 貴其香潔而光華也”

29) 고려대 구장목록, 귀 413 永嘉眞覺大師證道歌 姜孟卿 跋文 “…於是 上遵世宗之遺命 次爲東宮之冥福 命朝臣之善寫者 金書法華經一件 墨書地藏經梵網經行願品 印成大藏經華嚴經一件 法華經楞嚴經經名義各一百件 地藏經懺法十四件…”

〈표 2〉 성종조 묘법연화경 활자번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7卷, 권1-4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鑄刻本	萬壽山	無量寺	성종24(1493) 鑄刻	四周單邊, 半郭 26.0×16.0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0×21.0cm.		序文: 及南 跋文: 弘治6年 癸丑(1493)… 金悅卿		동국대귀213.14-법96·23 성암 2538
묘법蓮華經	3-7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鑄刻本	萬壽山	無量寺	성종24(1493) 刊, 鑄刻	四周單邊, 半郭 26.0×16.0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0×21.0cm.		跋文: 弘治6年 癸丑(1493)… 金悅卿		성암3736
묘법蓮華經	4, 5卷(落張)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鑄刻本			성종연간(1470-1494) 鑄刻綵刷	四周單邊, 半郭 26.0×16.0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0×21.0cm.				영광연흥사

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성종조 번각본

성종조의 갑인자번각본은 성종24(1493)에 만수산 무량사에서 번각된 판본인 동국대학교 소장본(213.14법96·23)권7말에 붙어있는 金悅卿의 발문에 의거하면,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주자로 찍은 법화경이 있었는데, 판이 極妙하여 이를 저본으로 重雕하였다고 하니³⁰⁾ 위에서 언급한 세종32년의 초주 갑인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찍은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세조, 정희왕후, 예종, 덕종의 천도와 인수왕대비, 인혜대비, 주상과 왕비, 세자의 수복강녕 및 국태민안을 위해 지희스님의 감독하에 당대의 덕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시주질을 동원하여 간행한 것이다. 동국대본은

바로 인출한 책이어서 도각이 선명하다. 영광연흥사의 4,5권과 영광불갑사의 2,4,5권은 낙장이 심하나 성종24년본을 바로 새긴 책에 해당한다(그림 5). 성암본도 같은 계통의 책이다. 전남 영광의 연흥사본은 권4·5중에 낙장이 있어 간기는 없지만, 도각이 깨끗하여 성종연간에 간행된 만수사번각본의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2.2 중종조 번각본

중종26(1531)에 공주 영산사에서 인출한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판고』에 나오지만 실사를 못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본 귀473(한21-379)은 1,2,4,7권의 4책이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서로 묶여 있다. 권7은 권말에 간행기록이 있어 중종34년본에 해당하고, 권1,4는 원래는 백련

30) 동국대소장본 213.14법96·23, 성종24(1493) 妙法蓮華經 권7末 金悅卿跋文: “... 顯陵廟爲春宮 有患疾所祈 鑄字法華經 極妙 乃重彫焉 自體甚工 鑄之甚研 始於辛亥(1491)春二月 工訖于壬子(1492)夏五月...”

〈표 3〉 중종조 묘법연화경 활자본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法蓮華經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齣刻本	永州	公山寺	중종26 (1531)	四周單邊,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3.0×21.0cm.	有	弘傳序... 祥邁 要解序... 及南 撰	嘉靖十年辛卯 (1531)慶尙道 永州郡公山寺本	法華經 異版考
묘法蓮華經	1.2, 4.7 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 齣刻本	安陰	靈覺寺	중종34 (1539)	四周單邊, 半郭 24.5×16.5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0×21.0cm.			嘉靖十八年己亥 (1539)正月日 慶尙道安陰地德 有山靈覺寺重刻	국립중앙 도서관 권473 (한21-379)
묘法蓮華經	7卷 7冊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 齣刻本	安陰	靈覺寺	중종34 (1539) 刻, 철종9 (1852) 後刷	四周單邊, 半郭 24.5×16.5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0×21.0cm.		序... 及南	嘉靖十八年己亥 (1539)正月日 靈覺寺重刻 經樞黃咸豐二年 (1852)流月日 留傳于紫雲庵法堂	동국대 213.14 -법96d7

〈표 4〉 인종조 묘법연화경 활자본각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法蓮華經	권6-7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甲寅字 齣刻本	智異山	新興寺	인종1 (1545)	四周單邊, 半郭 23.3×16.2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4.0×22.6cm.			嘉靖二十四年 乙未(1545) 仲夏月日智異山新興寺開板	영광불갑사 명부전복장 자료 no. 24(姜順愛, 靈光佛甲寺의 腹藏典籍 考 p.49. 동국대. 사찰조경연구 제6집, 1998)

사소장본으로 보이며 중종조 이후 임란이전의 번각에 해당한다. 권2는 후대의 을해자 번각본에 해당한다. 동국대본(213.14-법96d7)은 영각사에서 중종34(1539)에 찍었던 판목에서 후쇄한 책으로 완본이 남아 있다.

2.3 인종조번각본

지리산 신흥사에서 인종1(1545)에 개판된 묘법연화경 권6-7은 영광불갑사 복장본중의 하나인데, 갑인자계열의 번각본이다. 戒峯스님의 감독

하에 각수에는 惠崑, 學正, 崇海, 敬熙, 信崇, 善戒, 守仁, 惠聰, 辛淳, 虛悟, 希惻와 연판에는 戒峯, 巫玉, 浩並, 智元, 釋仁, 性梅, 允非가 관여하여 간행하였는데, 낙장의 결본이다(그림 6).

2.4 명종조 번각본

다음 책중 명종17(1562)본은 宗允이 주도하여 화순군 쌍봉사에서 간행한 것이며 영광불갑사의 명부전의 복장본이다(그림 7). 현재 쌍봉사에는 4종의 목판이 남아 있는데, 그중 묘법연

〈표 5〉 명종조 묘법연화경 활자번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法蓮華經	권7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鑄刻本	(和順)	雙峯寺	명종17 (1562)	四周單邊, 半郭 24.1×19.5cm, 有界 半葉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34.5×24.0cm.		跋文: 嘉靖41年(明宗17,1562)陽月...雙峯寺住持守安跋		영광불감사 명부전복장 자료 no. 26(姜順愛, 靈光佛甲寺의 腹藏典籍考 p. 50.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제6집, 1998)
묘法蓮華經	권7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鑄刻本	黃州	靈覺寺	명종19 (1564)	四周單邊, 半郭 25.0×20.0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8.0×25.0cm.			嘉靖四十三年甲子(1564)二月日黃州地西面德宥山靈覺寺加乙地理李順下家	法華經異版考
묘法蓮華經	권3, 6, 7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鑄刻本	文化	唄葉寺	명종19 (1564), [朝鮮朝後期]後刷	四周單邊, 半郭 25.0×20.0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8.0×25.0cm.	有		嘉靖四十三年甲子(1564)二月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唄葉寺開板	동국대 귀 213.14-법96 ㄱ 03

화경 17판은 간행기록은 없으나 판식과 을해자체의 판목인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명종19(1564)본은 황주 영각사에서 간행한 것이며 법화경이판고에 나오는 것으로 실사는 못하였다. 동국대소장본(213.14-법96 ㄱ 03)은 명종19년의 조선조후기 후쇄본이다. 명종19년 인출 당시는 處安의 감독하에 각수로는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下, 惠淨, 天雄, 信衍, 天心이 관여하였고, 연판에는 道堅이 관장하였다(그림 8).

2.5 선조조 번각본

무위사본은 선조5(1572)간행본인데 실사를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무위사에 그 목판이 남아 있는데, 선조5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어

그해에 을해지번각본으로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영광 연흥사소장본은 선조40(1607)년에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책이다. 이는 선조16(1583)에 崇印선사가 간행하여 유통시킨 판본이 있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불타버리고 80판이 낙질이 되었다. 이를 曇玄의 감독하에 160장을 개조하여 간행하였는데, 각수는 正普, 眞正, 玄緝, 勝還, 性梅, 一義, 勝徹, 道修, 性澄, 敬牛, 智守, 印和, 天熙가, 鍊板은 (小)勝徹, 惠英, 覺玄, 應信이 관장하였다(그림 9). 동국대본은 선조40년의 후쇄본으로 여겨진다.

2.6 광해군조 번각본

광해군조의 초주갑인자 번각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21-378)과 성암고서박물관(1086)에

〈표 6〉 선조조 묘법연화경 활자본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綉刻本	康津	無爲寺	宣祖5 (1572)	9行16字	有	弘傳序... 祥邁 要解序... 及南撰 弘傳序... 道宣	隆慶6年 (1572)夏全羅道康津地月出山無爲寺大字法華經	法華經異版考, 無爲寺所藏木板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 綉刻本	順天	松廣寺	宣祖40 (1607)	四周單邊, 半郭 24.4×16.8cm, 有界 半葉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8×23.0cm.	有	弘傳序... 祥邁 要解序... 及南撰 弘傳序... 道宣	萬曆35年 (1607)丁未閏六月日松廣寺蓮經一百六十張改造于此萬世流通者(補板이 섞여있음)	영광연흥사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 綉刻本	順天	松廣寺	宣祖40 (1607) 刻, 後刷	四周單邊, 半郭 24.4×16.8cm, 有界 半葉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8×23.0cm.	有	弘傳序... 祥邁 要解序... 及南撰 弘傳序... 道宣	大明萬曆三十五年丁未 (1607)閏六月日松廣寺蓮經一百六十張改造于此萬歲流通者	동국대 213.14-법 96스 2

〈표 7〉 광해군조 묘법연화경 활자본각본

서명	권수	편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1卷 1冊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寅字 綉刻本	順天	松廣寺	光海君7 (1615)	四周單邊, 半郭 25.0×16.5cm, 有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4×20.3cm.		弘傳序... 道宣 述, 一如註 終, 山人 思印書 要解序... 及南撰	萬曆十一年癸未春 山人崇印新刊 本板流傳 而丁酉之亂 爲倭火所燒 本板半餘 山人曇玄自戊申秋始役重刊流傳五六載 初卷甚 刊 又於自役造板五序及初卷改刊流通于松廣寺 歲萬曆四十三年乙卯(1615)秋	성암 1086, 국립한 21-378 (고26098)

권1이 소장되어 있다. 권1말에 붙어있는 발문에 의하면, 만력11(선조16, 1583) 봄에 崇印이 신간하여 본판이 유전되어 오다가 정유재란시에 왜군들의 병화에 타버려서 본판이 반쯤 남아 있었다. 曇玄스님이 선조41(1608) 가을에 중간하였는데, 5-6년사이에 초권이 심하게 이지러져서 문 및 초권을 광해군7(1615)에 다시 송광사

에서 간행한 것이다. 담현이 주관하여, 각수는 弘彦, 勝安, 思益이 맡았고, 연판 겸 조역은 비구 亢式과 保本이 관여하였다(그림 10).

2.7 인조조 번각본

동국대소장본(213.14-법96스03)은 숙종 12(1686)에 信還의 감독하에 인출된 후쇄본이

〈표 8〉 인조조 묘법연화경 활자번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번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 鐵刻本	淸道	水巖寺	仁祖9 (1631) 刻, 肅宗12 後刷	四周單邊, 半郭 24.0×19.8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花紋魚尾: 34.7×24.5cm.	有	弘傳序 …詳邁 要解序 …	崇禎四年 (1631) 辛未夏 慶尙道淸道地 九龍山水巖寺 重刊 後刷刊記: 康熙25年丙寅 (1686) 六月日 化主信還	東國大 213.14-법 96×03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印字 鐵刻本	寶城	開興寺	仁祖27 (1649)	10行18字			順治六年 (1649) 暮春 全羅道寶城地 五嶽山開興寺 新刊	法華經異版考

〈표 9〉 현종조 묘법연화경 번각본

서명	권수	번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印字 鐵刻本	曹溪山	仙岩寺	顯宗元年 (1660)	四周單邊, 半郭 23.2×16.7cm.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4.5×21.9cm.	有	弘傳序 …道宣 述, 一 如註終 山人思 印書 要解序 …及南 撰	順治17年 (1660) 庚子三 月日曹溪山仙 岩寺開刊	국립중앙도 서관 (고조 21-20)
묘법蓮華經	2-7 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印字 鐵刻本	金剛山	表訓寺	顯宗 4(1663)	四周單邊, 半郭 22.4×16.1cm.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7×21.2cm.	無	要解序 … 及南撰 弘傳序 …道宣	康熙2年 (1663) 癸卯夏 金剛山表訓寺	동국대 213.14-법 96V(목록 P. 183)

다. 처음 인출당시인 인조9(1631)에는 150여명의 시주질의 시주를 받아 乙敏스님의 감독하에 각수는 戒勳, 一雄, 崔山虎, 金景龍, 李景新, 崔應廉, 慈惠, 太信, 妙藏, 印惠, 敏元, 覺惠, 惠淳, 應覺, 性文, 一禪, 李屹立, 學明, 千壬生의 19명이 동원되고 연관은 覺性이 맡았다(그림 11). 법화경이판고에 나타나는 인조27년본은 실사하지 못하였다.

2.8 현종조 번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선암사본(고조21-20)은 조계산 선암사에서 현종원년(1660)에 찍은 책이다. 이 책은 정유재란시에 법화경 판본이 소훼되어 남아 있지 않게 되자, 隱浩와 坦海스님에 의해 효종3(1652)에 시작하여 현종원년(1660)에 완성되었다. 각수는 懷鑿을 비롯한 14명이 동원되는 대역사였다. 다만 변상도는

〈표 10〉 숙종조 묘법연화경 번각본 및 후쇄본

서명	권수	번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간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5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初鑄甲印字鑿刻本			肅宗12(1686)刻後刷	四周單邊, 半郭 25.4×16.7cm, 無界 半葉 10行18字, 上下向黑魚尾: 36.8×22.8 cm.			卷末墨書記: 康熙25年(1686)四月日印經施主甲申慶敏比丘願解如來眞實意	동국대 213.14-1 법96스스

〈표 11〉 영조조 묘법연화경 번각본

서명	권수	번역 및 주해자	판본	간행지	간행자	간행년	판식	변상도	서발문	목서기	소장처
묘법蓮華經	1卷	鳩摩羅什(後秦)譯, 戒環(宋)解	乙亥字鑿刻本			英祖3(1727)	四周雙邊, 半郭 25.0×20.0cm, 有界 半葉 9行16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5.5×25.0 cm.	有	要解序... 及南撰弘傳序... 道宣	雍正5年丁未(1727)月日化主比丘惠遠	동국대 213.14-법 96포02

順治3(인조24, 1646)에 日旭비구가 미리 판을 새겨 놓았는데, 독창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2〉.

2.9 숙종조 번각본

동국대본(213.14-법96스스)은 숙종12(1686)에 판각하여 후쇄한 것이다. 이는 뒤에 있는 목서지기에 의해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인경시주는 慶敏비구였다. 송광사가 기증한 책으로 판본은 비교적 깨끗하다.

2.10 영조조 번각본

동국대본(213.14-법96포02)은 영조3(1727)에 을해자번각본으로 인출한 것이며 현재 권1만 남아 있다. 변상도가 있으며 혜원비구가 관여하였고, 시주질은 김택구를 포함해서 8인이다 〈그림 13〉.

IV. 각 판본들의 서지적 성격

1. 사찰

갑인자 또는 을해자 활자본계의 판본들을 인출하여 유통시켰던 각 사찰들은 다음과 같다. 이 사찰에는 萬壽山의 無量寺, 永州의 公山寺, 安陰의 靈覺寺, 지리산의 新興寺, 화순의 雙峯寺, 황주의 靈覺寺, 文化의 唄葉寺, 康津의 無爲寺, 順天의 松廣寺, 淸道の 水巖寺, 寶城의 開興寺, 曹溪山의 仙岩寺, 金剛山의 表訓寺의 13寺이다.

만수산의 무량사는 충북 鴻山(지금은 부여군에 편입) 외산면에 있는 사찰로 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麻谷寺의 말사이다. 신라말에 범일이 창건하여 여러 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신라시대 고승 無染이 일시 머물렀고, 고려시대에 중창하였으

며 김시습이 이절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弘治 6(성종24, 1493)에 입적하였는데,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 그 뒤 읍의 선비들이 김시습의 풍절을 사모하여 학궁곁에 사당을 짓고 청일사라 이름하고 그 초상을 옮겨 봉안하였다.³¹⁾ 조선중기에는 고승 震默이 아미타불을 점안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보물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을 비롯하여 산신각 요사채 등이 남아 있다. 이 절에서의 경전 간행은 세종32(1450)의 초주갑인자본 묘법연화경을 비롯하여 연산군4(1498)의 法界聖風水陸勝會修齋儀軌, 중종17(1522)의 夢山和尚六道普說, 성종연간(1470-1494)의 地裝菩薩本願經 등을 간행하였다.³²⁾ 공산사는 경상도 영주에 있던 사찰로 현재 그 연혁을 알길이 없으나 중종 26(1531)에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을 간행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는 존속했던 사찰로 여겨진다. 영각사는 경상남도 함양군(고호는 安陰 또는 安義) 서상면 상남리 덕유산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다. 신라 헌강왕2(876)에 심광(深光)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창건 뒤의 역사는 거의 전래되지 않고 있다. 조선초기 태종7(1407) 조계종에 편입되었다.³³⁾ 세종31(1449)에 圓瓊대사가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세조8(1462)에 준공하였다. 그 후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한 절을 性默이 중종4(1509)부터 중종18(1523) 사이에 대웅전과 문간채 행랑의 건물을 중창하였다.³⁴⁾ 영조 50(1774)에는 雪坡尙彦이 鏡波·惠庵 등과 함께 화엄경 판목을 새겨서 이 절에 화엄전을 짓고 봉안하였는데, 3천1백41판이었다고 한다.³⁵⁾ 이후 순조34(1834)에 화재로 화엄경 판전을 제외하고 전소되어 판전을 수호하기 위한 요사채를 몇채 지었으나 다시 고종19(1882)의 화재로 다시 불타버렸다. 그 후 고종23(1883) 姜用月스님이 德月, 信月, 優曇, 瑞仁 등과 재건불사를 마쳤으나 육이오때 산신각과 2층창고, 산신탕과 칠성탱화만 남기고, 전체건물은 물론이고 법당내에 보존되어 오던 화엄경판 81권 3,248판, 범망경2권68판, 지장경판38판, 법화경판240판, 천지팔양경판15판, 기타 27판으로 도합 3,495판이 모두 불타버렸다.³⁶⁾ 그 뒤 1959년에 국고 보조를 얻어 법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 화엄전, 나한전, 루각,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지리산의 신흥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있던 사찰로 여겨진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의 본사인 선운사의

31)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동국대출판부 p. 380 : 梵宇攷

32)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권8, p. 173

33) 朝鮮王朝實錄, 太宗7年 12월 2일

34) 林薰, 靈覺寺重創記: “寺之創 不知肇何代 壁上有舊板誌記 亦不知何人作 康獻大王 開運三年丙子四月 始創是寺 越丙申 太祖神聖大王 合二韓爲一 更創是寺 而今已廢久 礎砌埋沒 正統十四年 有僧圓瓊者 披荆棘重建云云 乃天順六年之揭也 … 苾芻性默者·始創前無 始於己巳 訖於癸酉 又建大殿 始於丙子 訖於癸未…”

35) 이 화엄경판은 청량국사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 80권본이다. 이는 숙종7(1681)에 중국 平林 葉居士가 불법의 흥포를 위해 불경을 가득히 싣고 荏子島(務安郡)에 표착했는데 栢庵性聰스님이 이를 얻어 간행하여 전남 승주군 낙안면 금화산 징광사에 봉안하였다. 영조46(1770)에 징광사의 화재로 판자가 모두 소실되고 두 번째로 새긴 것이 영각사판이며, 이것은 다시 6·25동란으로 불타버렸다. 세 번째는 호남의 南湖永奇스님이 철종6(1855)에 性惟, 寶性, 性潤등과 함께 시작하여 그 이듬해 완각하여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 안장하였다.

36) 李智冠, 德裕山靈覺寺誌, 伽山佛敎文化研究院, 伽山學報第7號, (1998. 12) p. 302-326

말사이다. 백제성왕7(529)에 眞鑑국사 慧昭스님이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雲水誌』에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혜소는 8-9세기 활동 인물로 혜소스님의 창건은 연대가 맞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중건 및 중수가 있었으나 전성기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나한전, 산신각, 요사채 등 400여평의 건물과 300여명의 승려들이 머물렀던 대찰 이었다고 한다. 그 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靈虛(1816-1874)스님과 月影스님이 중창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운흥사라고 불렸으며,³⁷⁾ 현재는 30여평 규모의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만이 남아 있다. 불경의 간행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종1(1545)에 법화경 갑인자번각본을 인출하여 영광의 불갑사로 보낸 것을 보면 당시는 사찰의 사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화순의 쌍봉사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계당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이다. 신라 경문왕때 澈鑿선사가 창건하였고, 그의 도호를 따서 쌍봉사라 하였다 한다. 문성왕9(847)에는 선문9산의 하나인 사자산문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의 종풍을 이어받은 澄曉선사가 영월의 흥녕사에서 사자산문을 개산하게 되었다. 고려 문종35(1081)에 慧照국사가 창건 당시의 모습대로 중창불사를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는 세종대에 전라도 관찰사 金倣이 삼창불사를 하였다. 세조대에는 14(1468)에 세조의 원당을 지었고, 사방30리에 佛糧畝가 있었다고

한다. 연산군9(1503) 1월28일에는 수록재를 거행하는 사찰의 하나로 나타나 있고,³⁸⁾ 명종 17(1562)에 을해자번각본인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다. 선조30(1597)의 정유재란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된 것을 인조6(1628)에 了誼선사가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현종, 숙종, 경종, 영조조를 거치면서 불사를 계속하였다. 정조 10(1786)에는 聖衍스님이 김종수에게 부탁하여 쌍봉사사적비를 짓고, 黃運祚가 글씨와 전액을 곁해 써서 그해 9월에 비를 세웠다.³⁹⁾ 현재는 철갑선사탑과 탑비, 대웅전, 극락전, 명부전, 요사채 등이 남아 있으며, 목판은 4종류인데, 묘법연화경 17판, 금강반야바라밀경 선조8, 1575) 33판, 불조역대통제(선조9, 1576) 29판, 청문1판이 남아 있다.⁴⁰⁾ 영각사는 황주 서면 덕유산에 있던 사찰로 현재는 그 연혁을 알 길이 없다. 다만 명종19(1564)에 을해자번각본인 묘법연화경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는 존속했던 사찰로 여겨진다. 패엽사는 현재 그 존속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연산군 9(1503) 1월28일 승정원에서 아뢰는 내용중에 수록재를 행하는 전라도 雙峯寺, 경상도의 見巖寺, 황해도 貝葉寺에 향축사신을 보내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⁴¹⁾ 명종19(1564)에 법화경을 간행한 기록에 의거해서 당시까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무위사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월출산 동남쪽에 있는 사찰이며, 대한 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

37)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9: 전북의 전통사찰Ⅱ,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7, p. 155-157.

38) 朝鮮王朝實錄 燕山君9年 1月 丙申(28일)

39)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6, p. 379-382.

40)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p. 259-260

41) 燕山君實錄 9年 1月 28日條.

사이다. 『무위사사적』에 의하면, 절은 삼국 통일 후 헌강왕1(875)에 도선국사가 葛屋寺로 창건한 것이 첫 번째 중창이라 한다. 그 후 효공왕 9(905) 이후 선종인 迦智山門 계통의 先覺國사 迦微(864-917)가 고려 태조 왕건의 요청으로 無爲岬寺에 머무르면서 절을 중수하고 널리 교화를 펴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한다. 이로 보면 무위사는 10세기 초에 창건되었고 형미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가지산문 소속의 선종사찰이었음은 분명하다.⁴²⁾ 조선초기 태종7(1407) 12월에는 각처의 몇 사찰로 여러 고을의 자복사로 삼게 하였는데, 이때 무위사는 천태종17사중 하나로 소속되었다.⁴³⁾ 이것은 무위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선종사찰에서 천태종사찰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 세종12(1430)에 극락전이 건립되었고, 성종7(1476)에는 극락전 후불벽이 만들어지고 후불벽화가 조성되었다.⁴⁴⁾ 『신증동국여지승람』권37 강진현 불우조에는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했던 무위사를 이제 중수하고 이로인해 수록사로 한다'고 하였다.⁴⁵⁾ 수록사는 수록재를 행하는 사찰이다. 수록재는 지상에 떠도는 망령을 부처님에 의하여 환생시키는 재생의식으로서 적을 포함한 전사자를 위로하는 불교의식이다.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목판 가운데 수록재와 관련된 목판이 남아 있어 주목케 한다. 이들 목판은 1570년대에 간행된 誠初心學人文(선조3,

1570), 天地冥陽水陸雜文(선조4, 1571), 天地冥陽水陸齋儀纂(선조4, 1571), 妙法蓮華經(선조5, 1572)이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아 절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고 한다. 그 뒤 화재 등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숙종4(1678)에 당간지주가 제작되고, 영조15(1739)에는 海超스님의 공덕으로 전각이 보수되었는데 당시 미타전, 천불전, 시왕전이 있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극락전이 국보 제131호로 지정되고, 1974년 벽화보존각, 해탈문, 분향각, 천불전, 미륵전 등을 중건하여 옛절의 모습을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의 본사이며 大吉祥寺 또는 修禪寺라 하였다. 삼보사찰의 하나이다. 송광사는 신라말기에 혜린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길상사라고 하였다. 그 뒤 고려 인종때 석조가 중창하려는 뜻을 세우고 역부를 소집하고 임목을 준비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한 채 죽었다. 50여년후에 보조국사가 이곳으로 정혜사를 옮겨옴으로써 새 규모의 사찰로 발전하였다. 보조국사가 송광사를 대수도 도량으로 만들 수 있었던 연원은 명종12(1182) 개성 보제사의 답선 법회에 참석하여 수행결사를 약속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197년 보조국사는 결사의 동지들과 더불어 지리산 상무주암에 들어가 3년동안을 정진하다가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와 자리를 잡았

42)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6: 전남의 전통사찰 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1996. p.49-50.

43) 太宗實錄 7年 12月 2日條

44) 無爲寺極樂殿墨書名

4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康津縣 佛宇條.

“在全羅南道康津郡月出山 開運三年 僧道訢所創 歲久頽毀 今重營 因水陸社”

다. 이에 회종은 송광산 길상사의 이름을 고쳐 조계산 수선사로 하였다. 보조이후 제2대 혜심으로부터 180여년동안 15명의 국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초기 16대 고봉화상이 태조4(1395)에 불·법·승의 전당을 중건하였고, 정종은 수륙사를 증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2(1420)에는 고봉의 뒤를 이어 中印이 당우를 증축하고 정종때 설립하였던 수륙사를 철폐하고 선종으로 복귀하였다.⁴⁶⁾ 임진왜란시는 응선이 지리산에 있던 浮休선사를 모셨는데, 당시 부휴는 그의 제자 400여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600여명의 송광사 승려들이 부휴를 모시고 동안거를 성대히 보냄으로써 근세에 이르는 송광사의 명맥을 부활시켰다. 현종8(1842)에는 낙하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52칸을 소실하였다. 그 이듬해 기봉과 용운

스님의 노력으로 철종7(1856)까지 14년동안 증창불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율암, 구산, 현호스님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 송광사의 판각은 구산스님이 토굴로 사용하던 印月庵인데, 이 토굴의 원래 이름은 板瓦庵으로 송광사지의 지도에 나타나며, 송광사사고에는 板子庵으로 표기되고 있다.⁴⁷⁾ 이곳에서 판각하여 화엄전에 판목을 두고 관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송광사의 판각은 전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송광사에 유관하고 있는 목판을 보면, 65종 3,901판이 남아 있다.⁴⁸⁾ 이중 표본연화경은 2종류가 있으나 활자본 계열의 판본은 아니다. 다만, 현존본으로 전하는 선조40(1607)년본과 그 후쇄본 그리고 광해군7(1615)년본이 초주갑인자본 각본들이다. 수암사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었던 사찰로 여겨지는데,⁴⁹⁾ 자세한 연혁은 현재 알

46) 세종실록 세종6年 10월 25일조

47) 古鏡, 曹溪山松廣寺周邊遺蹟巡禮踏查記(未出刊本). : 고경 스님은 현재 송광사 박물관장이며 송광사사지와 송광사사고 및 기타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송광사의 기본 사적들의 위치를 조사하였는데, 인월암은 N 34°59'44", E 127°16'37", A290m, 좌향 100°(동) 陰地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의 초창은 미상이나 1985년 10월 16일에 중건하면서 구산스님의 토굴인 印月精舍의 현관을 옮겨 달았다. 사지 p. 34에는 암자명만 기록되어 있고, 사고 p. 12에는 지도에 표기되어 있음. 동남 200m에 흑토기와 전도요지(전남기념물 제31호)가 있다. 사고 p. 94에는 板子庵으로 표시되어 있음.

48)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p. 230-258.

"大方廣佛華嚴經疏(송광사, 1635刊, 2346판), 十地經論(송광사, 1635刊, 252板), 妙法蓮華經(송광사, 1799刊, 238판), 佛說阿彌陀經(송광사, 1648刊, 11판), 大報父母恩重經(송광사, 1711刊, 11판), 金剛般若波羅密經(송광사, 1618刊, 12판), 太上玄舍北斗本命延生真經(송광사, ?刊, 11판), 地藏菩薩本願經(송광사, 1791刊, 43판; 송광사, 1611刊, 40판), 大佛頂如來密 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송광사, 1609刊, 156판), 佛說預修十王生七經(송광사, 1618刊, 14판), 佛說壽生經(? , 4판), 人天眼目(송광사, 1529刊, 43판), 宗鏡錄撮要(송광사, 1531刊, 17판), 禪家龜鑑(송광사, 1618刊, 28판; 송광사, 1610, 35판), 無用堂遺稿(송광사, 1724간, 31판), 默庵集(송광사, 1801간, 34판), 影海大師詩集抄(송광사, 1801, 12판), 浮休堂大師集(송광사, 1619, 12판), 翠微大師集(송광사, 1667, 19판), 看話決疑論(송광사, 1608, 10판), 高麗國普照禪師心訣 附真心直說·四法語(송광사, 1799간, 26판), 定慧結社文(송광사, 1608, 17판),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8판), 初發心自警文(송광사, 1577, 21판; ?12판), 四法語 附 夢山和尚法語略錄(송광사, 1608, 10판), 四法語(? , 7판), 夢山和尚法語略錄(송광사, 1577, 17판), 禪源諸詮集都序(송광사, 1608, 24판), 大慧普覺禪師書(? , 29판), 高峯和尚禪要(? , 13판), 默庵子抄集華嚴文科圖(송광사, ? , 4판), 大總相法門圖(송광사, ? , 4판),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49판), 天地冥陽水陸雜文(송광사, 1531, 38판), 天地冥陽水陸齋儀疏 傍文牒節要(? , 7판),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송광사, 1647, 22판), 召請使者疏(? , 4판), 請文(? , 53 版), 雲水壇 譯詞(송광사, 1636, 22판), 佛祖宗派之圖(송광사, ? , 3판), 百聯抄解(송광사, ? , 12판), 中峯和尚普勸念佛捷徑圖(송광사, 1781, 1판), 海水觀音像(송광사, 1606, 1판), 古詩(송광사, ? , 12판), 類合(송광사, 1730, 16판)) 千字文(송광사, 1730, 16판), 기타 12종.

49)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동국대출판부 p. 720 ; 太嶺志

길이 없고, 인조9(1631)에 간행한 판에서 숙종 12년에 다시 후쇄한 것을 보면 그 당시까지는 존속했던 사찰로 여겨진다. 개흥사는 전라남도 보성군 오봉산에 있던 사찰로 여겨지며 현재 그 역사는 알 길이 없다. 고려시대 了圓의 법화영험전을 중간한 곳이기도 하며 법화도량이 시설된 것으로 보아 천태종계열의 사찰인 듯 하다. 또한 이 절은 인조27(1649) 당시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고, 그 판을 보수하여 효종2(1649)에 다시 간행한 것을 보아 그 당시까지는 존속했던 사찰임을 미루어 알뿐이다.⁵⁰⁾ 선암사는 전라남도 승주군 승주읍 죽하리 조계산에 있는 사찰이다.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 헌강왕 5(875)에 도선의 창건설이 유력하다.⁵¹⁾ 절의 중창은 고려 선종6(1088)에 의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선암사에는 의천의 영정이 남아 있는 것도 이러한 인연 때문이다. 선조30(1597) 정유 재란때 많은 건물이 불타고, 현종1(1660)에 敬俊, 敬峯, 文正 등 세 대덕이 중건하였으며, 이어 枕肱이 많은 당우를 보수하였다. 침평의 문인 중에는 護岩과 致玄이 있었는데 특히 치현은 법화경의 염송을 수행의 공덕으로 삼았다. 숙종 30(1704)에는 浩然이 仙岩寺史蹟을 작성하였다. 순조19(1819)와 23(1823)의 화재이후 海

鵬, 訥庵, 月波가 대규모의 중수불사를 이룩하였다. 일제시대의 사찰령에 의한 사찰규칙에 의해 30분사중의 하나가 되어 승주군, 여주시, 여천군의 말사를 통섭하였다. 이 절에는 현재 26종 835판의 경판이 남아 있는데,⁵²⁾ 이판들은 17-18세기 사이에 간행된 판들이다. 표훈사는 조선초기 華嚴, 慈恩, 中神, 始興 4종을 교종으로 합쳤을 때 어느 종파에 속한 사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엄종찰로 여겨진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장안사와 마찬가지로 회양도호부 금강산내의 이 사찰을 교종에 붙이고 전지 삼백結을 내렸다.⁵³⁾ 신라 진평왕20년(598)에 觀勸이 隆雲과 함께 건립하였고, 문무왕15년(675)에 表訓 등이 중창하였다. 조선조 태종과 세종대에는 명나라 사신들이 飯僧會를 개최하였고, 명종 즉위년(1545)에 왕실을 위해 法華經戒環解를 간행하였으며 판은 그대로 留板하였다가 후대 長安寺本의 저본이 되기도 하였다. 현종4(1663)에는 초조갑 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다. 세조의 위패를 모신 원당이 있어 중시되었고, 이로 인해 정조20년(1796)에 국가가 중수하도록 하였다.⁵⁴⁾ 본당은 般若寶殿이고 그 안에 화엄경에 나오는 法起菩薩丈六象을 안치하였고 사찰내의 酬忠影閣은 서산, 사명대사와 나옹의 眞影이 보관

50)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동국대출판부 p. 55: 東國輿地勝覽 40卷 寶城郡佛宇條·梵字攷 “在全羅南道 寶城郡 五峯山”: 伽藍考, “在郡東二十五里”; 太嶺志, “在郡南二十里”; 寺塔古蹟考, “古址在寶城郡得報面三亭里距寶城邑東方約三十里”

51)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

“도선은 지리산 성모천왕이 만일 세 개의 巖寺를 창건하면 삼한이 합하여 한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라고 한 말을 듣고, 세암자를 창립하였는데, 仙巖, 雲巖, 龍巖이 그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5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仙岩寺刊版留鎮, 1655, 343판), 妙法蓮華經(? , 1728, 259판), 釋迦如來行蹟頌(? , 1709跋, 62판), 枕肱集(仙岩寺, 1695, 50판), 霜月大師詩集(? , 1780跋, 20판), 證道歌(? , 14판),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 9판), 四分律七聚大目抄 附優婆塞五戒相經(仙岩寺留板, 1691跋, 17판), 略禮王供作法(? , 20板), 類合(仙岩寺, 丁卯(?), 13판), 千手梵字(뒷면: 八萬大藏經題目)(? , 1762, 1판), 諸多羅尼宗取(뒷면: 八萬大藏經題目)(海川寺, 1768, 1판), 기타

53) 世宗實錄地理志, 淮陽都護府條.

54) 世宗實錄 20년 6월10日條 : 20年8月25日條.

되어 있다.

2. 서체

활자본의 주종을 이루는 초주갑인자와 을해자본의 자체에 대해서 보면, 초주갑인자는 세종 16(1634)7월에 착수하여 20여만개의 큰활자와 작은 활자를 주성하였다. 이것이 초주갑인자이다.⁵⁵⁾ 그 자본은 경연 소장의 『孝順事實』, 『僞善陰鷲』, 『論語』 등의 글자를 자본으로 삼았고, 부족한 것은 진양대군 유(뒤의 세조)가 써서 보충하였다. 그 서체가 매우 아름답고 명정한 필서체인데, 이는 왕희지가 배운 바의 李充의 어머니인 위부인의 글씨체와 비슷하다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일컫기도 한다.⁵⁶⁾ 초주갑인자는 불경 인출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세종28(1446)3월 24일 소현왕후 심씨가 죽자 그의 명유천도(冥遊薦度)를 위해 불사에 착수하였다. 그해 금니로 불경을 사성하여 대자암에서 전경회를 가졌고, 이듬해인 세종29(1447)에 수양대군등이 왕명을 받아 『釋譜詳節』의 편역에 착수하여 인서하였고, 이를 왕이 보시고 읊은 장편의 찬불가가 『月印千江之曲』이다. 이들 인본을 보면 한자는 유연하게 운필된 필서체의 초주갑인자이고, 한 글자는 강직하게 직선으로 그은 인서체의 한글 동활자이다. 세종32(1450)에도 내불당을 짓고 사리출현의 상서가 있음을 적은 『舍利靈應記』를 초주갑인자본으로 인출하였다. 같은 해 2월에 동궁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大方廣佛華嚴經』과 『妙法蓮華經』을 간행하였는데, 화엄경은 목

판에 묘법연화경은 초주갑인자본으로 인출하였다. 이 묘법연화경은 성종조부터 숙종조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되며 유통되었다. 대부분의 번각본에도 초주갑인자의 서체가 남아 있다.

을해자는 세조 즉위원년(1455)에 姜希顔의 글씨체를 자본으로 하여 동으로 주성한 활자이다. 그 인본을 보면 대체로 큰자, 중간자, 작은자의 세종류가 있다. 글자체가 평평하고 폭이 넓은 원필계통이며, 중간자에 강희안의 글씨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중 큰자는 세조의 글씨를 바탕으로 삼았다.⁵⁷⁾ 을해자의 인본으로 큰자, 중간자, 작은자로 찍은 책은 불서가 먼저인데, 한자본으로 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선종영가집, 천태사교의 등이다. 그중 능엄경과 영가집은 세조7(1461) 5월 효령대군이 회암사의 불사를 계기로 번역을 주청하여 완성시키고, 능엄경을 그해 9월에 을해자의 큰자, 중간자, 작은자 및 한글자로 찍어 반시하였다. 여기에 들어있는 한글자는 월인석보의 고덕인서체가 필서체로 옮겨가고 있음이 특징이다. 을해자 초간본의 묘법연화경은 중종조부터 영조조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번각되며 유통되었는데, 이들 번각본도 을해자의 서체가 많이 남아 있다.

3. 변상도

위에서 조사된 판본중 변상도가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5종이었다. 명종19(1564) 嘔葉寺간행의 을해자번각본, 인조9(1631) 水巖寺의

55) 金鑄鑄字跋

56) 鄭元容, 袖香編. 鑄字所: 鑄字所應行節目, 板堂考

57) 天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p. 262

을해자변각본, 영조3(1727)의 을해자변각본, 선조40(1607) 송광사 간행의 초주인자변각본, 현종원년(1660) 선암사 간행의 초주갑인자변각본이다. 명종19, 인조9, 영조3의 을해자변각본에 나타나는 변상도의 구도는 같다. 이 형식은 여러 가지 도상이 모여서 하나의 판화를 이루고 있다. 제1판에는 五尊佛과 三尊佛 <그림 14-1>, 제2판에는 五尊佛과 寶塔출현의 장면 <그림 14-2>, 제3판에는 역경장면과 位牌 <그림 14-3>, 제4판에는 韋陀天<그림 14-4>이 새겨진 도상이다. 모두 4매의 판으로 이루어져 범화경 권수판화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독특하다. 많은 권속들이 본존을 둘러싼 靈山說法圖의 도상이 아니라는 점이 위의 형식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제1판의 오른쪽에는 설법인을 한 본존과 가섭과 아난, 범천과 제석천이 배치되어 있고, 본존의 대좌앞에는 청문하는 성문(사리불)의 뒷모습이 보인다. 왼쪽은 定印을 취한 본존과의 대좌에 앉은 좌우협시보살이 배치된 삼존불인데 이들 아래에는 공작 두마리가 마주보고 있다. 제2판의 오른쪽 도상은 제1판의 오른쪽 도상과 같은 오존도이고, 왼쪽에는 보탑이 새겨져 있다. 이 보탑은 구름 가운데 보탑이 높이 솟아 있고 사방에 사천왕상이 배치된 것이다. 제3판의 도상은 승려의 역경장면과 위패이다. 오른쪽 역경장면은 화면의 왼쪽에 승려가 책상 앞에 앉아 역경하는 모습이 새겨지고, 그 옆에 경전을 받쳐든 8명의 승려와 천인 등의 무리가 뒤다르고 있으며 화면의 상부에는 신장들이 그림 속에 배치된 구도가

다. 제4판은 오른쪽에만 좌향한 위타천이 새겨져 있다.⁵⁸⁾

초주갑인자본에 나타나는 변상도는 선조40년본과 현종원년본의 구도가 다르다. 선조40년 송광사본은 1매의 판에 지원정사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것이다(그림 15). 화면중심의 약간 오른쪽에 향호와 화반 등이 올려진 法床을 앞에 놓고 설법하는 본존이 자리하고 그 좌우에는 4보살, 10대제자, 사천왕, 팔부중의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아래에는 10대제자중 解空第一 수보리가 청문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뒤로 재가중과 청문중이 자리하여 설법을 듣는 모습이 이 판화의 내용이다.⁵⁹⁾ 현종원년본은 변상도는 영산회상도 형식과는 달리 3매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도상은 위타천과 석가, 아미타, 약사의 삼세불로 구성되었다. 제1판에는 오른쪽에 위타천만이 그려지고 왼쪽에는 세로로 칸이 쳐져 있을 뿐 그림은 없다. (조사본에는 이부분이 결락되어 있음) 제2판은 외쪽의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일광, 월광보살을 비롯한 4보살과 左·右輔弼星, 제석천, 이천왕 그리고 무장형의 약사 12신장 등의 권속이 늘어서 있다(그림 16-2). 제3판의 오른쪽은 삼세불의 중심인 석가여래와 청문하는 사리불 그리고 문수, 보현보살과 10대제자 및 신중2위가 여래를 에워싸고 있고, 왼쪽에는 설법인을 취한 아미타여래가 관음 세지를 비롯한 8대보살과 범천, 2천왕 그리고 신중3위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6-3). 즉 3매판을 이어 놓으면, 오른쪽에서부터 약사, 석가, 아미타의

58)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7. p. 60-61

59)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7. p. 61-62

삼불과 각각의 권속들이 이들을 둘러싼 구도이다. 이러한 도상은 조선조 대웅전 후불화로 봉안되는 삼불회도의 도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⁶⁰⁾ 선암사본이 이러한 권수판화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것인데, 이번에 조사한 국립소장본(고조21-20)은 1매가 떨어져나가고 2매만이 남아 있다. 이 판화에는 변상간기가 들어 있는데, 순치3(인조24, 1646) 智環이 밑그림을 그리고 日旭(一旭, 一昱)이 새겨낸 변상 판목을 사용하여 현종원년(1660)에 선암사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간행기록이 있는 판본 중에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간행기록이 없는 초주갑인자 번각본중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양식의 변상도는 간경도갑본과 정희왕후주판의 모범연화경에서도 나타나는 구도인데, 제1판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위한 석가모니가 그를 향해 청문하는 사리불에게 설법하는 모습이 새겨지고 오른쪽에는 가섭을 비롯한 5제자와 4보살, 범왕과 2천왕 그리고 4구의 신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위로 구름을 타고 도래하는 시방제불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2판은 1판의 권속과 대칭되게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 여백에는 구름과 몇 송이의 산화가 표현된 구도이다. 즉 2판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면 중앙에 석가모니와 사리불이 위치하고 그 좌우에 권속들이 배치된 구도로서 이들은 모두 용출하는 구름에 쌓여있는 모습이다

4. 경판간행질

佛經은 그 刊行에 관계한 刊行秩에 관해 적고 있는데, 이에는 大化主, 刻手 및 鍊板, 書寫, 校正, 施主, 供養主, 別座 등에 관하여 적고 있다. 이들은 각기 그 소임이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그 공역에 관계한 사람들의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다. 大化主는 化士, 幹化, 幹善, 都監, 設辦이라고도 하며 개관에 있어서 불사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사람이다. 三綱은 서기와 채무에 해당하며⁶¹⁾, 首僧은 총무에 해당하는 스님이다. 刻手는 板刻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에 관장 책임자인 大行首(大首頭), 판각활동의 총괄자인 首頭, 다른 僧役과의 연락이나 각수내의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公員과 掌務로 세분할 수 있다. 鍊板은 摸板을 조정하는 역이다. 書寫는 저본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校正은 책의 교정에 관여하는 이다.

施主는 개관자재의 기부자이고, 供養主는 飯頭라고도 하며 절에서 대중이 먹을 齋米를 공양하는 이다. 持殿은 개관불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三寶(三輔 또는 三甫)는 知客 또는 知賓이라고도 하며 사찰에 오고 가시는 손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別座는 典座라고도 하며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할 반찬과 음식 일체를 맡는 역이다. 또 부처님앞에 공양할 거리를 맡는 소임중에 六色榜⁶²⁾이 있는데, 보통은 六所榜이라 하여 부처님앞에 공구를 마련하는 장소를 이른다. 色淨榜

60)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7. p. 58-59

61)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3. 서울: 명문당, 1995. p. 234 三綱: " 각 사찰마다 삼인의 소임을 두어 중국에서는 上座, 寺主, 維那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삼강은 秦魏 이후 처음 상좌의 勅補가 이어 사주와 유나위에 둔 것이 그 시초라 하였다.

이라고도 하며 이는 造餅, 飯頭, 熟頭, 菜露, 鍊器, 大都의 여섯가지 공양 소임을 맡은이를 지칭하기도 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서기, 별좌 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경판간행질 중 자주 등장하는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 <표 11>로 나타내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나타난 <표 11>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판간행질 및 시주질의 위치를 보면, 권1 말미에 5종, 권7말에 4종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권1의 경우에는 서문, 변상도, 경판간행질이 동시에 실려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주는 간화, 화주, 간선, 화사 등으로 불리고 9종 모두가 스님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9종의 판각이 모두 불사가 크게 이루어져 비중 있는 스님들로 여겨진다.

각수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10-19명이 관여하였다. 만수사 무량사본은 세종조의 묘법연

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되었고, 각수는 9명이 관여되었는데, 大禪師 4명, 參學1명,⁶³⁾ 指諭 1명,⁶⁴⁾ 司直3명⁶⁵⁾이며, 스님5명과 무반4명이 분판하여 판각하였다(그림 17). 이중 이장손은 성종5(1474)에 예념미타도량참법과 예종1(1469)의 지장보살본원경등 왕실불사에 관여하였고, 최금동은 성종1(1470)의 정희왕후가 주관한 대자 묘법연화경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영각사는 性默이 중종4(1509)부터 중종18(1523) 사이에 증창이 있는 뒤의 불사여서 각수10명과 연판2명으로 12명의 각수가 동원되었다(그림 18). 이들 각수들은 각수명목록을 참조하면, 16세기에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의 사찰간을 이동하며 판각불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⁶⁾ 신흥사는 기존의 목록에 나타나지 않던 것이지만, 각수의 동원내역만 보아도 당대의 불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며, 11명의 각수와 7명의 연판을 동원하였다(그림 19). 이들 11명의 각수들은 16세기 중기부터 17세기초에 걸쳐 경상, 충청, 전라, 황해도간을 오가면서 판

- 62)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5, 서울: 명문당, 1995, p. 230-231 六色榜: "六所榜. 육색의 소임을 적은 방. 부처님 앞에 공양할 공구를 마련하는 곳, 우리나라 절에서 큰 법식을 행할 적에 三寶에게 공양할 거리를 장만하는 책임을 맡은 것을 적어 놓은 방목. 지금에 와서 어떤 것이 육색방인지 상고할 수 없으나 어떤 절에서는 色淨榜이라 하여 造餅, 飯頭, 熟頭, 菜露, 鍊器, 大都를 말한다. 요즘 쓰는 육색방은 다음과 같다. 造花, 造菓, 造餅, 飯頭, 熟頭, 菜露, 工器, 細麵, 煮色, 飯色, 匙色, 茶角, 知殿, 淨桶, 汲水, 火臺, 地排, 知賓, 別座, 都監, 書記, 維那 등을 말함
- 63) 조선시대의 승과시험은 중종때에 폐하였다가 명종때에 다시 회복하여 과거의 대과에 해당하는 教宗禪과 禪宗選이 있었고, 소과에 해당하는 參學이 있었다. 대과에 합격하면 大選이라는 초급 법계를 주었다. 교종의 경우는 대선→中德→大德→大師→都大師의 순이고, 선종은 대선→中德→禪師→大禪師→都大禪師의 순이다.
- 64) 指諭는 조선초기 大殿, 中宮殿, 東宮殿, 司水監 등에 딸린 무관직의 하나
- 65) 司直은 ① 조선초기 수창궁제거사, 경복궁제거사, 경덕궁제거사의 정8품 벼슬 태종14(1414)에 副提控으로 고쳤다 ② 조선초기 훈련관의 중요품 벼슬 ③ 조선초기 정5품의 무반벼슬, 태조3(1394)에 中郎將으로 고쳤다 ④ 조선초기 토관직의 서반 정오품벼슬 ⑤ 조선시대, 오위의 정5품 무반벼슬
- 66) 法崇은 신흥사(경상, 진주)의 능엄경(1527), 광흥사(경상, 안동)의 금강반야바라밀경(1530), 공산사(경상, 영천)의 묘법연화경(1531); 道信은 대광사(전라 순천)의 선림보훈(1525), 신흥사(경상, 진주)의 능엄경(1527), 청룡사(충청, 증원)의 묘법연화경(1613); 印正은 신안사(전라, 금산)의 대승기신론소(1528), 서대사(전라, 진산)의 인천안복(1530), 신안사(경상, 문경)의 진실주집(1537); 惠允은 신안사(경상, 문경)의 진실주집(1537), 금강산(강원)의 선문염승집(1549), 광덕사(충청, 천안)의 묘법연화경(1555); 天印은 중대사(전라, 진안)의 몽산화상법어약록(1543), 광덕사(충청, 천안)의 묘법연화경(1555), 보살사(충북, 청주)의 능성구씨성보(1576); 靈芝는 신흥사(경상, 진주)의 능엄경(1527)

〈표 11〉 경판간행질

寺刹名	刊行年度	經板刊行秩 및 施主秩의 表示位置	大化主	刻手 및 鍊板	書寫	校正	施主秩
無量寺	성종24 (1493)	卷7末	幹化	雕刻秩: 處玉, 唱敏, 釋熙, 正行, 胤禎, 指諱, 道和, 司直李長孫, 崔今同, 崔貴永			施主秩: 朴庵外 130여명, 飯頭: 雪俊, 茶頭: 戒心, 熟頭: 德行
靈覺寺	중종34 (1539)	卷7末	化主: 六行	刻手: 法崇, 道信, 付問, 祥云, 印正, 道安, 仇淡, 惠允, 天印, 靈芝 鍊板: 戒淳, 釋行			施主秩: 智行외 140여명, 緣化秩: 惠雄, 德終, 熙寬, 覺心, 元應
新興寺	인종1 (1545)	卷7末	化主: 戒峯	刻手秩: 惠嘗, 學正, 崇海, 敬熙, 信崇, 善戒, 守仁, 惠聰, 辛淳, 虛悟, 希問 鍊板: 戒峯, 巫玉, 浩並, 智元, 釋仁, 性梅, 允非			施主秩: 尹光宗外 160여명, 供養主: 洪濟, 億春
唄葉寺	명종19 (1564), 後刷		化主: 處安	刻手秩: 碧岩, 道成, 一岩, 惠衍, 守衍, 學卞, 惠淨, 天雄, 信衍, 天心, 鍊板: 道堅			施主秩: 李貴?의 10여명, 供養主: 志問, 熟頭: 信悟
松廣寺	선조40 (1607)	卷1末	幹善: 曇玄	刻手秩: 正普, 眞正, 玄緝, 勝還, 性梅, 一義, 勝徹, 道修, 性澄, 敬牛, 智守, 印和, 天熙 鍊板: (小)勝徹, 惠英, 覺玄, 應信			施主秩: 潘彥世 외 140여명, 助緣: 禪覺, 榮熟: 道悟, 飲飯: 玄祖, 別座: 姬儻
松廣寺	광해군7 (1615)	卷1末	化士: 曇玄	刻秩: 弘彥, 勝安, 思益 鍊板兼助役: 允式, 保本			施主秩: 曹大山外 12명
水巖寺	인조9 (1631)	卷1末	大化主: 乙敏	刻手: 戒勳, 一雄, 崔山虎, 金景龍, 李景新, 崔應廉, 慈惠, 太信, 妙藏, 印惠, 敏元, 覺惠, 惠淳, 應覺, 性文, 一禪, 李屹立, 學明, 千壬生 鍊板: 覺性			施主秩: 崔彥石外 150여명, 別座: 目問, 供養主: 一梅, 道淳, 省立
水巖寺	인조9(1631), 숙종12 후쇄	卷1末	化主: 信還				
仙岩寺	현종원년 (1660)	卷1末	化士: 坦海, 幹善: 隱浩, 三綱: 熙安, 首僧: 杜安	刻手秩: 懷鑿, 金奉益, 一鑿, 得雲, 學牛, 處尙, 金命俊, 致觀, 致是, 卓淳, 應銓, 宗雄, 敏澄, 海悟 變相刻: 日旭 鍊板: 惠空, 依贊			變相大施主: 什音我 法華經大施主: 智英 板子大施主: 金仁祥 鐵物大施主: 申厚生 供養大施主: 李得秋 鹽大施主: 金?金, 供養大施主: 武眞 大禪師: 懸下, 坦元, 桂逸 緣化秩: 別座: 思正, 眷主: 雙淳, 彥欽, 少者: 得日, 祥立, 松吉

각불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⁶⁷⁾ 폐업사가 각수10명, 연판1명(그림 20), 송광사는 선조40(1607)에는 각수 13명, 연판 4명이(그림 21), 광해군7(1615)에는 각수3명과 연판조역 2명이 관여하였다(그림 22). 인조9(16310)의 수암사본은 각수19명과 연판1명이 관여되었고(그림 23). 현종원년(1660)의 선암사본은 각수 14명에 변상각수1명, 연판2명이 관여되었다(그림 24).

서사는 판본의 저본을 필사하는 경우인데, 갑인자와 을해자의 원본또는 번각본이라 별도의 필사자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교정은 원본의 경우는 왕실에서 주관한 간행불사여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였을 것이고, 번각본도 교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표시된 경우는 없었다.

시주질은 개관불사의 자재를 납부하는 이들로 적개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40-160여명이 관여하는 대불사도 있었다. 무량사본은 시주질 외에 육색방에 해당하는 飯頭, 菜頭, 熟頭가 표시되어 있고, 영각사는 시주질과 연화질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신흥사는 시주질이 160여명으로 대불사였는데 비하여 공양주는 2명만을 대표로 적은 듯하다. 폐업사는 시주질이 10여명이고 공양주1명, 숙두1명이 기록되어 있다. 송광사본(선조40, 1607)은 시주질 140여명과 조연, 육색방중의 菜熟과 飲飯, 공양일체의 책임을 맡

은 별좌가 표시되어 있다. 같은 사찰의 광해군 7(1615)본은 시주질 13명만 제시되어 있다. 수암사본은 시주질이 150여명이며, 별좌 1명과 공양주 3명을 기록하였다. 선암사본은 시주질과 연화질을 세분하여 변상대시주, 법화경대시주, 판자대시주, 철물대시주, 염대시주, 공양대시주로 나누고, 연화질에는 별좌, 권주, 소자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이중 眷主는 불사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이고 少者는 젊은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듯하다.

V. 결론

활자본계열의 묘법연화경의 판본에 관하여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묘법연화경의 동전과 유통을 종합하면, 이 경전은 초기 대승불교에 속하는 경전으로서 인도 서북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고 세 종류가 현존하고 있는데, 축법호역의 정법화경 10권, 구마라습 역의 묘법연화경 7권, 사나굴다 역의 첨품묘법연화경이다. 이들 법화경은 삼국시대에 들어와 유포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원효를 비롯한 여러 학승들에 의해 법화경의 연구가 이루어져 15종 정도가 문헌에 남아 있으며, 현존본은 2종이 남아 있다. 고

67) 惠聽은 보원사(충청, 서산)의 도가논변모자이혹론(1580), 강당사(충청, 서산)의 천지명양수륙잡문(1581); 學正은 석두사(황해, 토산)의 묘법연화경과 함허당득등화상현정록(1543, 1544), 능인암(경상, 지리산)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1611); 崇海는 신흥사(경상, 진주)의 선문염송집(1549); 敬熙는 영천사(전라, 태인)의 묘법연화경(1530), 신흥사(경상, 진주)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1537), 송광사(전남, 순천)의 초발심자경문(1577); 信崇은 문수사(전라, 고창)의 법화영험전(1534), 신흥사(경상, 진주)의 동산화상육도보설(1536)과 현정론(1538), 남대암(경상, 진주)의 고봉화상선요(1539); 善戒는 신흥사(경상, 진주)의 선문염송집(1549), 광덕사(충청, 천안)의 묘법연화경(1555); 守仁은 광덕사(충청, 천안)의 묘법연화경(1555); 惠聽 남대암(경상, 진주)의 고봉화상선요(1539), 辛淳: 虛悟; 希側

려조에는 의천이 개입한 천태종의 사상적인 발전에 힘입어 유포되었고,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61종이 수록되어 있다. 의천이 죽은 후 그의 법계는 요세, 천인, 천책, 원혜, 무외, 순암, 운묵, 행호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관 유통되었던 묘법연화경중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과 이를 기초로 하여 송의 계환이 주해를 붙인 법화경 계환해가 유통되었다. 이들의 계통은 성달생서체계, 황진손서체계, 활자본계, 간경도감계, 정희왕후주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간경도감계, 정희왕후주관계통은 구마라습의 역본이고, 성달생서체계, 황진손서체계, 활자본계통은 구마라습본을 저본으로 한 계환의 요해본이다.

2.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의 유통에 대해 종합하면, 묘법연화경은 조선조 초기에는 불교의 각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통합함에 따라 묘법연화경과 그의 계환하는 범불교적으로 간행·유통되었고, 특히 정도왕생의 신앙등과 결부되면서 공덕경으로 사용되었다. 이중 활자본계열의 묘법연화경은 세종말기부터 영조조까지 유통되는데, 주로 조계선종 계열의 사찰에서 많이 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원본의 유통은 갑인자본과 을해자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세종32(1450)의 초주갑인자본은 문종의 병이 심해지자 이를 치유하기 위해 왕실이 주도하여 간행한 것으로 인쇄가 정교하고 종이는 왜지지를 사용하였으며 성종조 무량사본의 저본이 되었다. 현재는 당시 33부를 인출한 것중 권5-7의 잔본이 남아 있는데 김수온의 발문이 붙어 있다. 또하나의 세조3(1452)에 인출한 100건중의 1건이 남아 있다. 을해자본

은 완질본이 역시 없고 세조초기와 세조연간에 간행된 책이 남아 있다.

2) 이후 영조조까지는 기간본을 저본으로 번각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왕실의 수복 강녕, 국태민안, 사찰의 불사와 그 간행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개관되었다. 성종24(1493)본은 만수산 무량사에서 왕실과 국가를 위해 간행된 것이며, 이를 성종연간에 후쇄한 판본도 남아 있다. 중종조의 번각본으로는 공산사, 영각사의 판본이 있는데, 중종34(1539)의 영각사본은 성목에 의해 절이 중창된 후의 간행본이라 왕실의 수복 및 사찰의 불사를 위해 간행되었다. 이를 저본으로 철종조에 후쇄한 판본이 남아 있다. 명종조의 번각본은 쌍봉사, 영각사, 패엽사본이 있는데, 모두 을해자본이다. 쌍봉사본은 불갑사 명부전에 복장되었던 판본이며 영각사본은 실사를 못하였으나 패엽사본이 이의 후쇄본이어서 그 특징은 알 수 있다. 선조조에는 무위사본과 송광사 간행본이 두종류가 남아 있다. 무위사본은 선조5(1572) 간행의 을해자본인데 현재 그 판목이 남아 있다. 송광사본은 선조16(1583)에 인출한 판목을 선조40(1607)에 보판하여 간행한 초주갑인자본이고, 동국대소장본은 이의 후쇄본이다. 또한 광해군7(1607)년본도 선조40년의 중간본을 일부 다시 보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인조조본은 인조19(1631)본은 을민스님의 감독하에 수암사에서 간행된 것을 숙종12(1686)에 인출된 후쇄본이다. 현종조는 선암사와 표훈사에서 간행한 판본이 있는데, 모두 초주갑인자본이다. 선암사본은 정유재란으로 법화경판본이 소훼되자 은허와 탄해스님의 의해서 간행되었다. 숙종조는 12년에 간행하여

후쇄한 판본이 남아 있다. 영종조는 영조3년에 을해자변각본으로 인출한 것이 있는데 현재 동국대가 소장하고 있다.

3. 활자본계열의 묘법연화경의 재판본에 나타나는 서지적인 성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사찰들의 성격을 보면, 13개의 사찰중 조계선종 계열이 7종, 천태선종 계열이 1종, 화엄종 계열이 1종, 종파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4종이다. 조계선종의 사찰이 많으나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공덕용으로 많이 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서체의 특징은 갑인자계열과 을해자 계열의 서체이다. 갑인자계열의 서체는 그 자본은 경연 소장의 『孝順事實』, 『僞善陰鷲』, 『論語』 등의 글자를 자본으로 삼았고, 부족한 것은 진양대군 유(뒤의 세조)가 써서 보충하여 그 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명정한 필서체이다. 을해자계열의 서체는 그 자본은 세조 즉위원년(1455)에 姜希顔의 글씨체를 자본으로 하여 동으로 주성한 활자이다. 그 인본을 보면 대체로 큰자, 중간자, 작은자의 세종 류가 있다. 글자체가 평평하고 폭이 넓은 원필계통이며, 중간자에 강희안의 글씨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중 큰자는 세조의 글씨를 바탕으로 삼았다. 두종류의 변각본들은 글씨의 특징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변상도가 분명하게 남아 있는 5종은 명종 19(1564) 嘔葉寺간행의 을해자변각본, 인조 9(1631) 水巖寺의 을해자변각본, 영조 3(1727)의 을해자변각본, 선조40(1607) 송광사 간행의 초주인자변각본, 현종원년(1660) 선암사 간행의 초주갑인자변각본이다. 명종19,

인조9, 영조3의 을해자변각본에 나타나는 변상도의 구도는 같다. 이 형식은 여러 가지 도상이 모여서 하나의 판화를 이루고 있다. 제1판에는 五尊佛과 三尊佛. 제2판에는 五尊佛과 寶塔출현의 장면, 제3판에는 역경장면과 位牌, 제4판에는 韋陀天이 새겨진 도상이다. 모두 4매의 판으로 이루어져 법화경 권수판화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독특하다. 초주갑인자본에 나타나는 변상도는 선조40년본과 현종원년본의 구도가 다르다. 선조40년 송광사본은 1매의 판에 지원정사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현종원년본은 변상도는 영산회상도 형식과는 달리 3매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도상은 위타천과 석가, 아미타, 약사의 삼세불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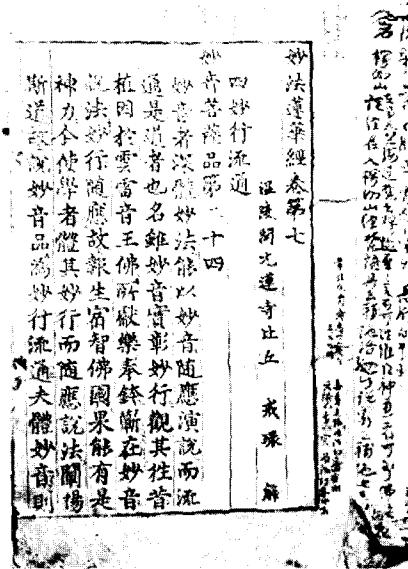
4) 경판간행질의 간행질 및 시주질의 위치는 권1말에 5종, 권7말에 4종이 나타나고 있다. 대화주는 총감독으로 개판불사를 총괄하는데, 9종 모두가 스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각수는 판각에 관계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적게는 2-3명, 많게는 10-19명이 관여하였다. 이들 각수는 각도를 이동하면서 불경의 판각에 관여하기도 하고, 무량사본의 각수들 중에는 무반이 4명이나 참여한 경우도 있으며, 선암사본은 변상각수가 별도로 관여한 경우도 있다. 모판을 조정하는 연판역도 1-2명 또는 4-7명선으로 참여하였다. 서사는 판본의 저본을 필사하는 경우인데, 갑인자와 을해자의 활자본 계열의 판본이어서 별도의 서사자는 보이지 않았다. 시주질은 개판불사의 자재를 납부하는 이들로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140-160여명이 관여하는 대불사도 있다. 대부분 시주질이 중심을 이루고 간혹 연화질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소임을 분명히 하는 경우는 육색방에 들어가는 반두, 숙두, 채두, 채

숙, 반반등의 예가 나타나기도 하고, 공양일체의 총책임을 맡는 별좌를 표시하기도 한다. 수암사본의 경우는 시주질도 변상, 법화경, 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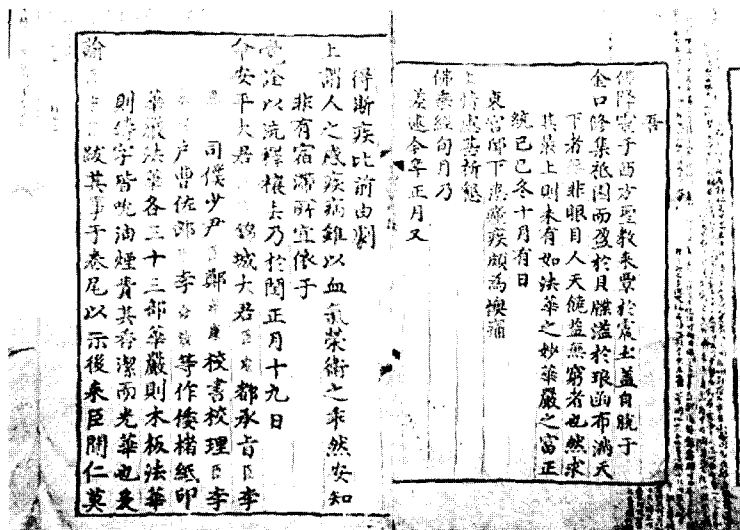
철물, 염대, 공양대시주로 세분하고 연화질은 별좌, 권주, 소자로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그림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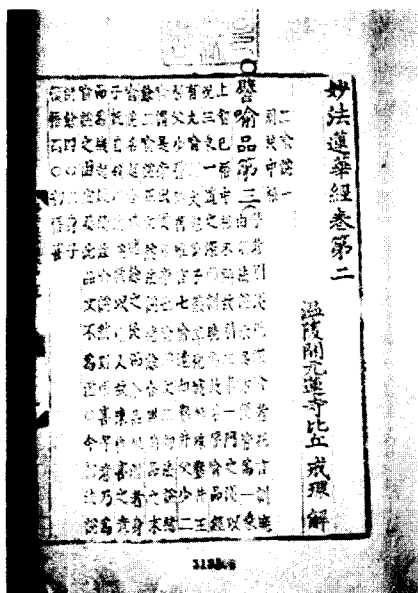
〈그림 1-1〉 대일사 세종32년 초주갑인자본 묘법연화경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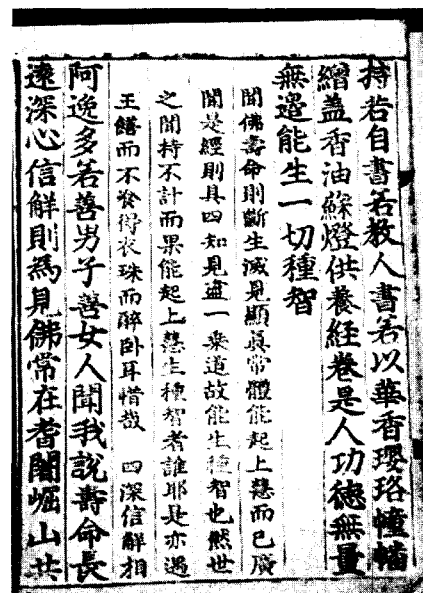
〈그림 1-2〉 대일사 세종32년 초주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김수온발문1



〈그림 1-3〉 대일사 세종32년 초주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김수은발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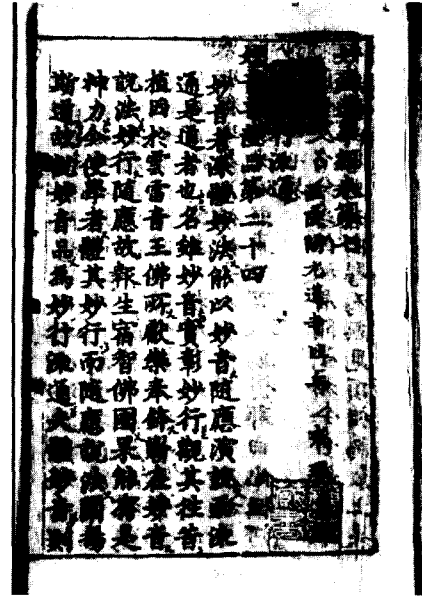
〈그림 2〉 서울대 기림 고귀294.333-B872 m v.2 세조3 초주갑인자본 묘법연화경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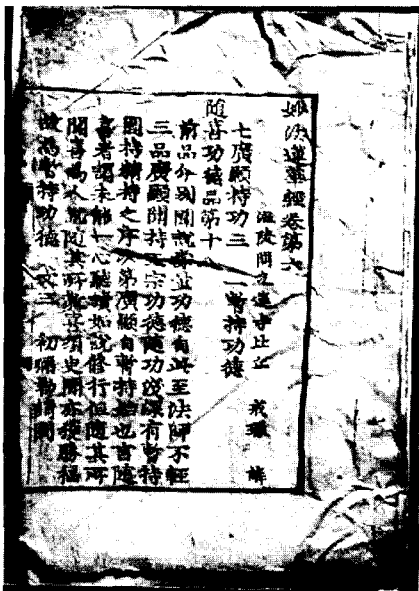
〈그림 3〉 고려대 만송귀71G 세조원년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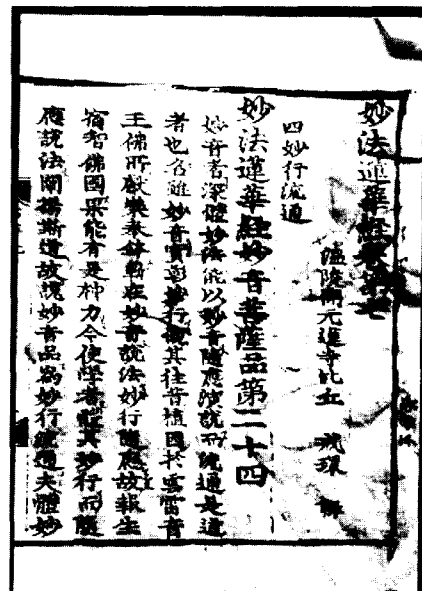
〈그림 4〉 연세대 귀634 세조연간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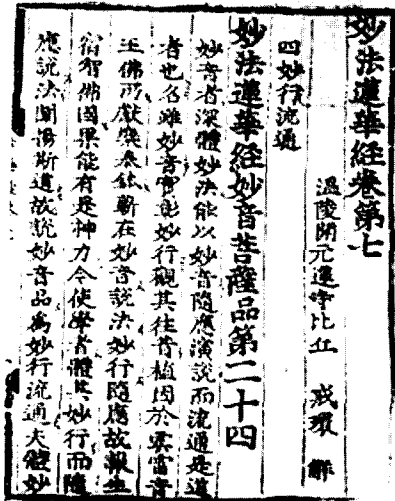
〈그림 5〉 동국대 귀213. 14-법96·23 성종 24무량사 초주갑인자본각본 묘법연화경 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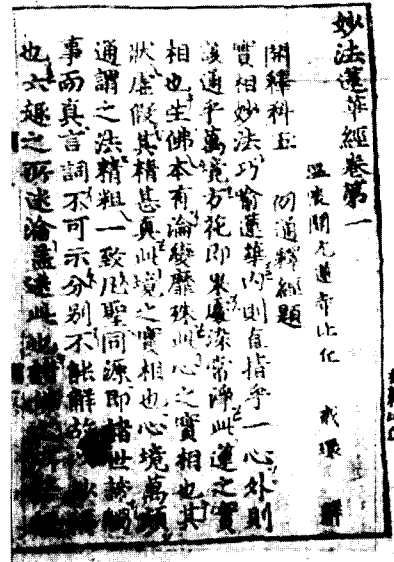
〈그림 6〉 영광불갑사 명부전복장 no. 24 인종1 신흥사 갑인자본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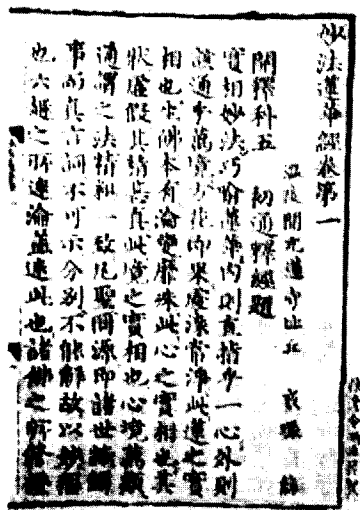
〈그림 7〉 영광 불갑사 명부전 복장 no. 26 명종17 쌍봉사 을해자본각본 묘법연화경 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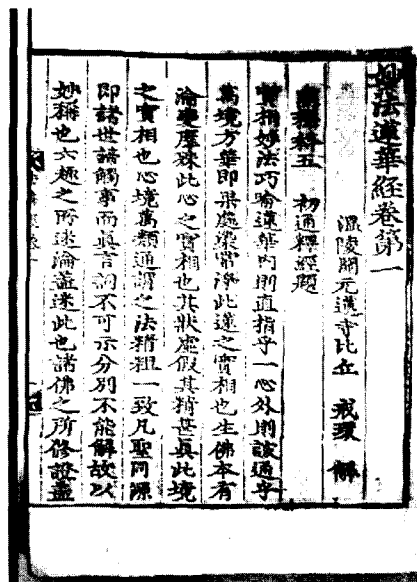
〈그림 8〉 동국대귀213.14-법96표03 명종 19, 조선조후기후쇄. 패엽사 묘법연화경 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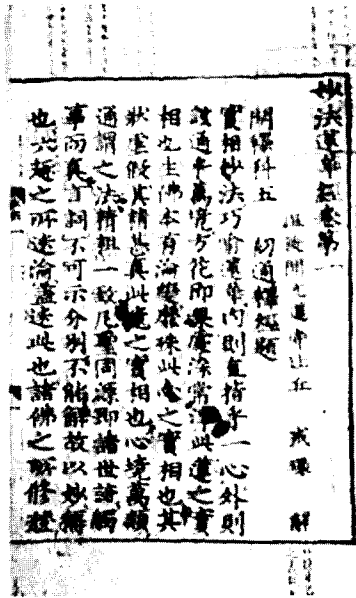
〈그림 9〉 영광 연흥사 선조40 송광사 초주 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제1



〈그림 10〉 국립한21-378 광해군7 송광사 초주갑인자번각본 권1



〈그림 11〉 동국대213.14-법96사0 인조 19, 숙종12후쇄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권1



〈그림 12〉국립고조4-20 현종원년 선암사 초주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1



〈그림 13〉동국대213. 14법96호2 영조3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1



〈그림 14-1〉동국대213. 14-법96호3 인조9각, 숙종12후쇄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 변상도 제1판 오존불과 삼존불



<그림 14-2> 동국대213. 14-법96 ㄱ03 인조9각, 숙종12후쇄 을해자번각본 묘법 연화경 변상도 제2 오존불과 보탑



<그림 14-3> 동국대213. 14-법96 ㄱ03 인조9각, 숙종12후쇄 을해자번각본 묘법 연화경 변상도 제3판 역경장면과 위패



〈그림 14-4〉 동국대213. 14-법96 ㄱ03 인
조9각, 숙종12후쇄 을해자번
각본 묘법연화경 변상도 제4판
위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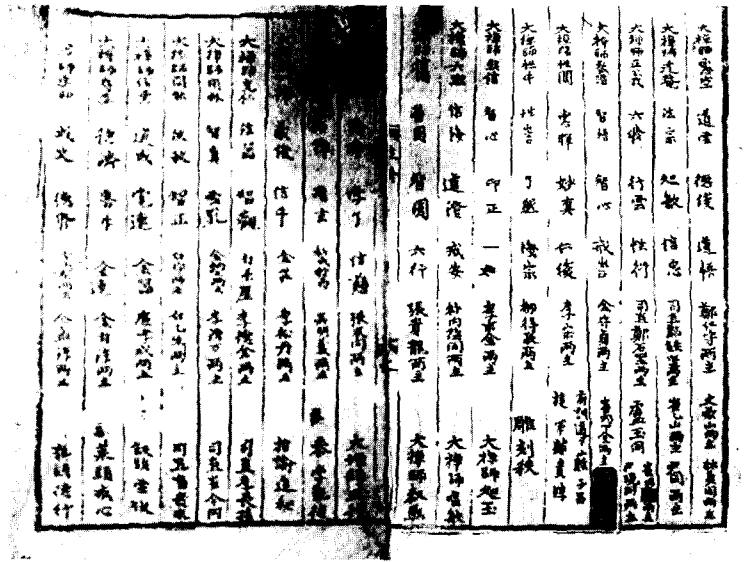
〈그림 15〉 영광 연흥사 선조40 송광사 묘법연화경변상도 지원정사의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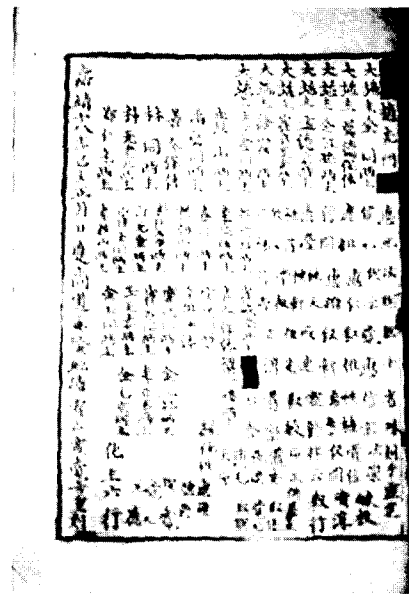
〈그림 16-2〉 국립중앙도서관 고조 21-20 현종원년 선암사 묘법연화경변상도 제2 판 약사여래와 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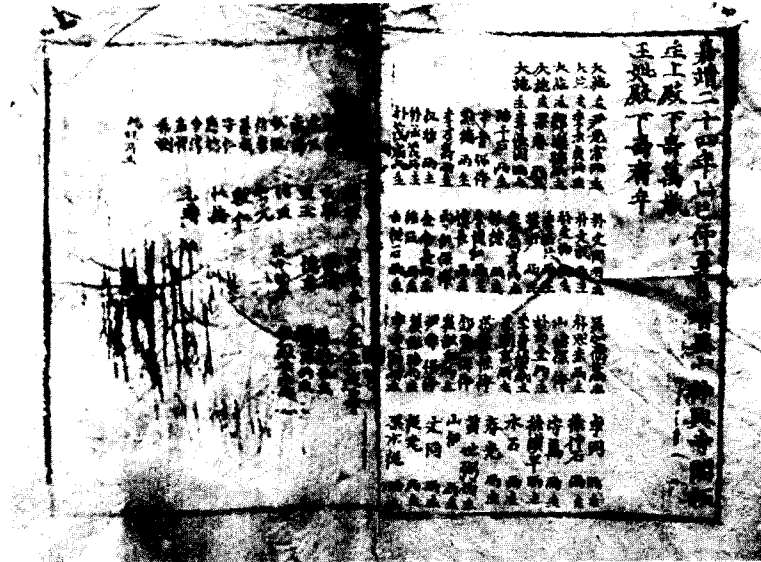
〈그림 16-3〉 국립중앙도서관 고조 21-20 현종원년 선암사 묘법연화경변상도 제3 판 석가여래 및 권속, 아미타불과 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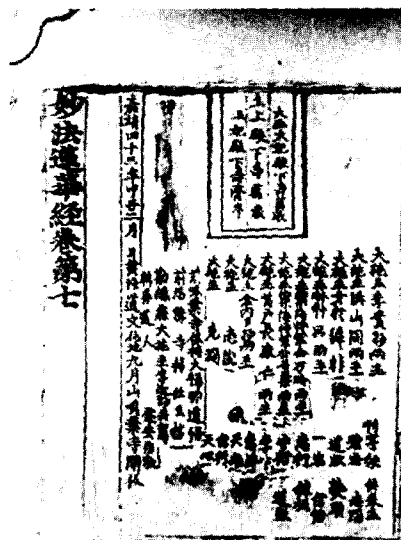
〈그림 17〉 동국대213. 14-법96·23 성종25 무량사 묘법연화경 권말 조각질(雕刻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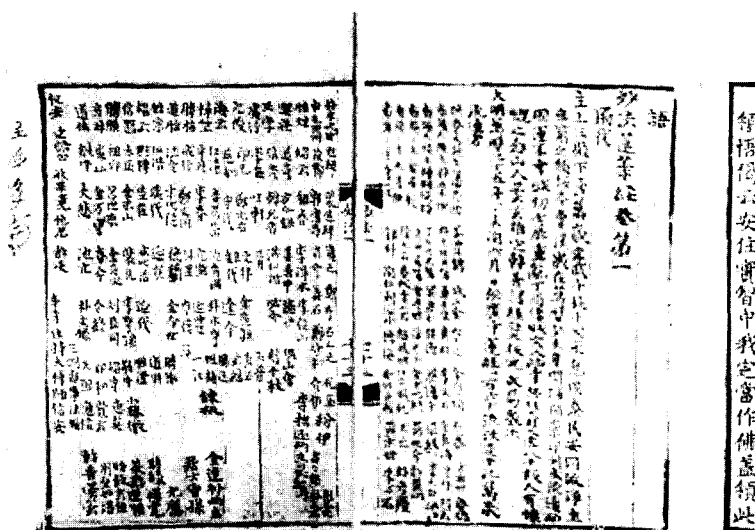
〈그림 18〉 국립중앙도서관 귀473 중종34 영각사 초주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말 각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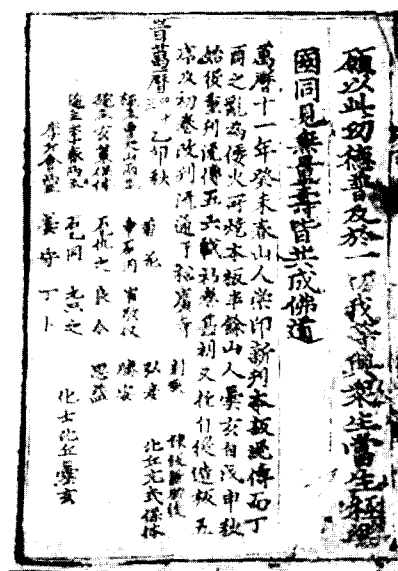
〈그림 19〉 영광불감사 명부전 복장 no. 24 인종1 신흥사 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말 각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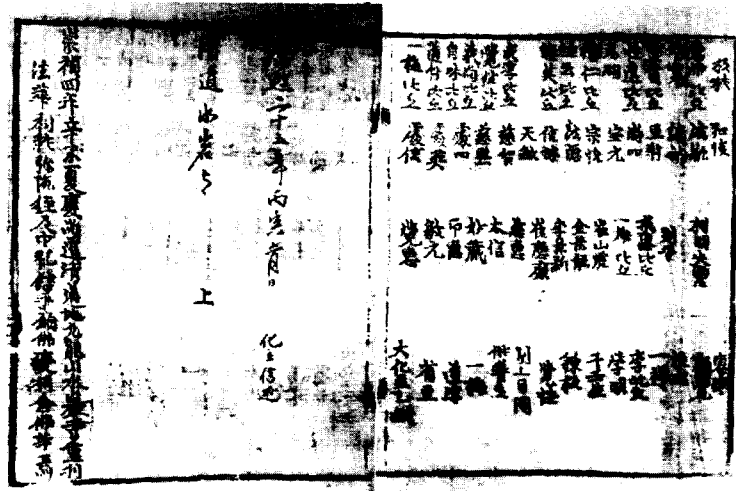
〈그림 20〉 동국대귀213. 14-법96표03 명종19, 후쇄 패엽사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말 각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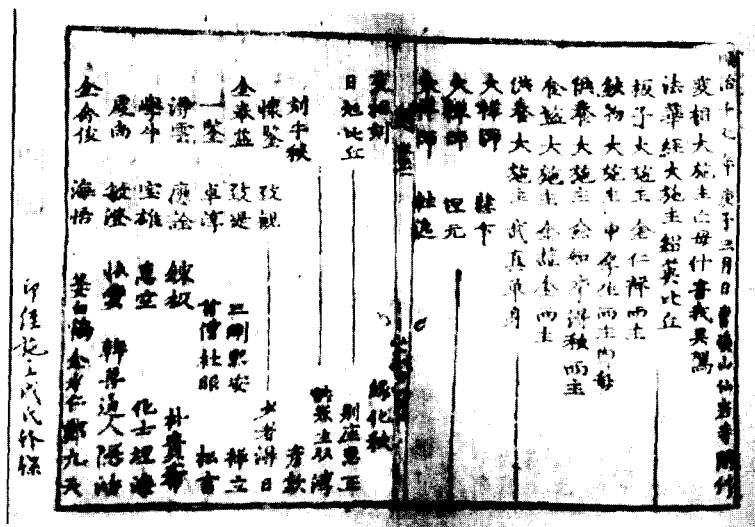
〈그림 21〉 영광 연흥사 선조40 송광사 초주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발 각수질



〈그림 22〉 국립한고21-378 광해군7 송광사 초주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발 각수질



〈그림 23〉 동국대213. 14-법96사03 인주9각, 숙종12후쇄 을해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말 각수집



〈그림 24〉 국립중앙도서관 고조21-20 현종원년 선암사 초주갑인자번각본 묘법연화경 권말 각수집